

Annual Report  
2019  
KBS시청자상담백서



#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19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8
5. 정보공개 안내	113
※시청자 권익보호란?	120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23
7. 시청자 청원	125
8. 제작진 답변	127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33
- KBS 민원처리규정	138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43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46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51

#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24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23 명이 주간 2 교대, 야간 2 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mailto: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인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 2

# 2019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373,842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281,839건 75.4%)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

##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간	상담건수	증감	증감률
2019년	373,842	▼ 2,780	-0.74%
2018년	376,622	▼ 32,658	-7.98%
2017년	409,275	▼ 67,218	-14.11%
2016년	476,493	▲ 23,426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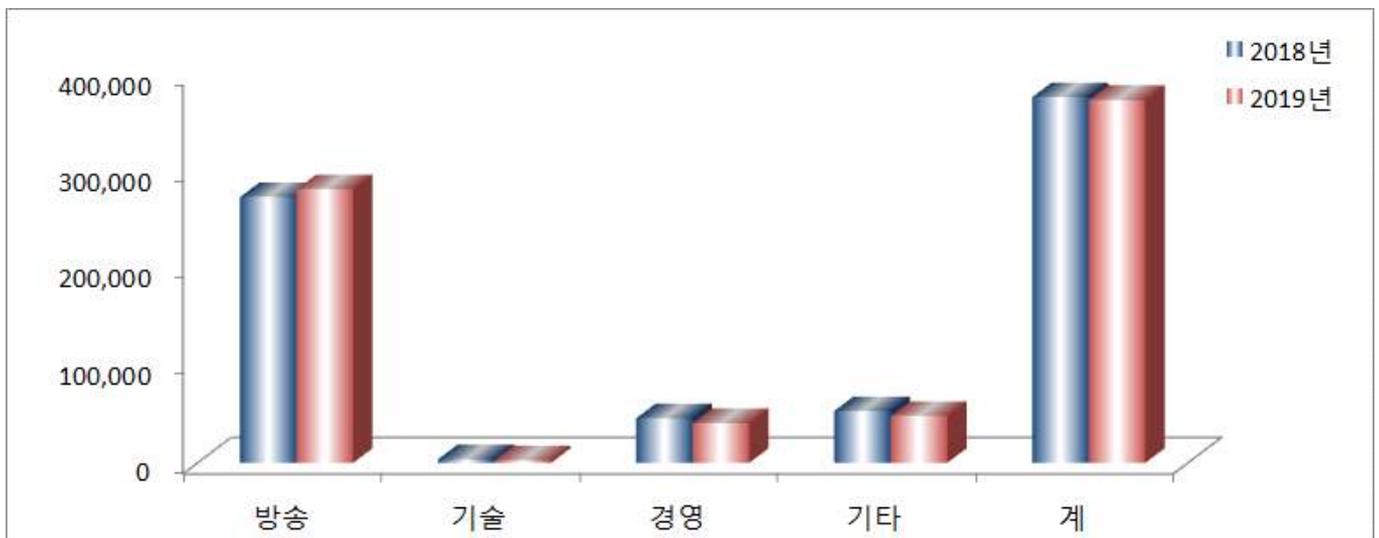


## 2 시청자의견 집계

### ■ 2019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25,198	249	3,933	4,874	34,254	
2	20,398	180	3,203	3,691	27,472	
3	24,388	233	3,667	4,644	32,932	
4	23,278	234	3,671	4,287	31,470	
5	25,450	273	3,623	3,875	33,221	
6	20,358	223	2,976	3,188	26,745	
7	23,859	267	3,473	4,037	31,636	
8	23,558	286	3,162	3,924	30,930	
9	20,827	274	3,099	3,981	28,181	
10	26,501	251	3,333	4,647	34,732	
11	22,908	179	3,068	3,582	29,737	
12	25,116	212	3,625	3,579	32,532	
계	건	281,839	2,861	40,833	48,309	373,842
	비율	75.4%	0.8%	10.9%	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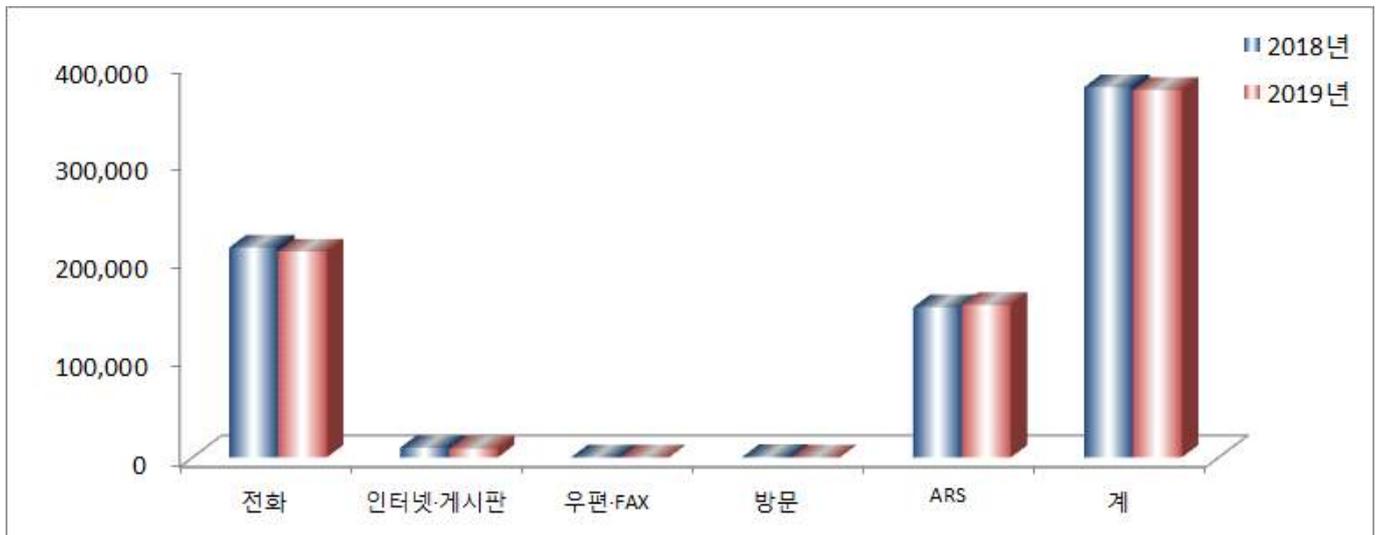
[2018년, 2019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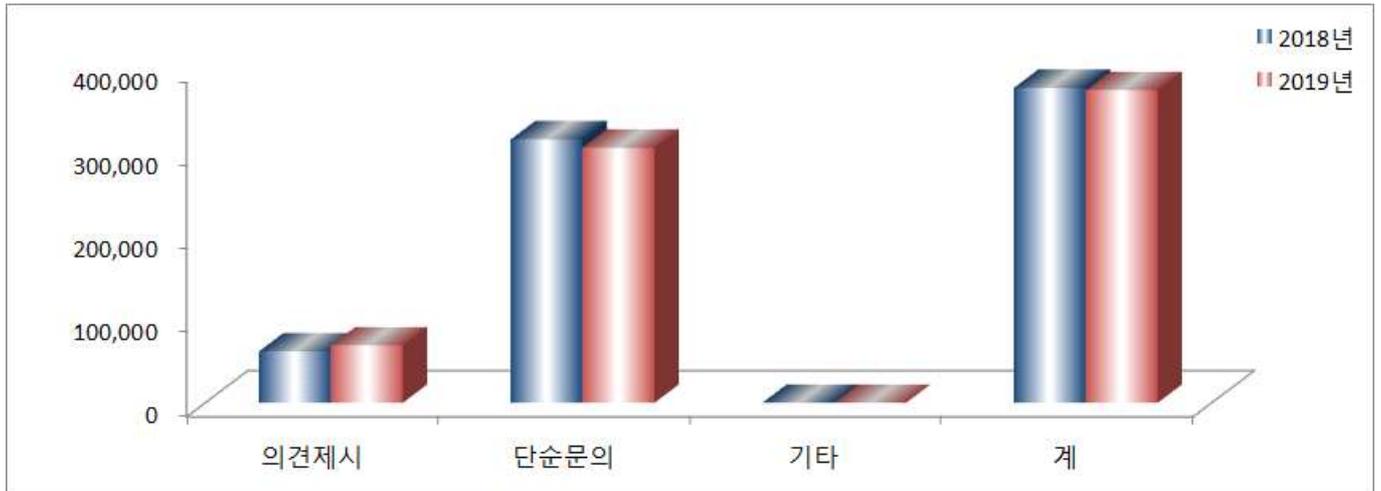
■ 2019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19,227	790	11	23	14,203	34,254	
2	16,010	450	10	6	10,996	27,472	
3	18,864	671	11	6	13,380	32,932	
4	17,252	709	8	7	13,494	31,470	
5	17,944	1,330	9	5	13,933	33,221	
6	14,969	444	2	2	11,328	26,745	
7	17,328	694	3	6	13,605	31,636	
8	17,813	537	2	4	12,574	30,930	
9	16,236	635	11	5	11,294	28,181	
10	20,439	862	11	6	13,414	34,732	
11	16,348	649	6	5	12,729	29,737	
12	17,196	1,171	12	8	14,145	32,532	
계	건	209,626	8,942	96	83	155,095	373,842
	비율	56.1%	2.4%	0.0%	0.1%	4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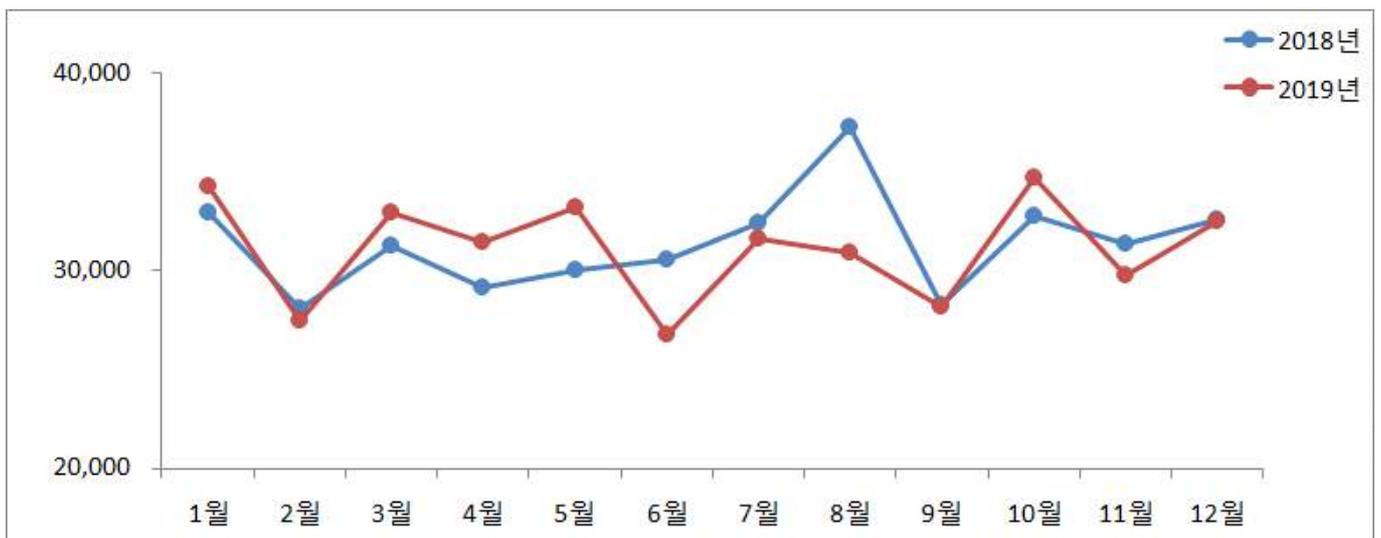
[2018년, 2019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8년, 2019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8년, 2019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19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99	69	0	233	35	44	39	0	0	519	
2	106	65	0	120	39	70	37	0	0	437	
3	214	69	0	363	93	89	27	0	35	890	
4	238	135	1	184	23	126	33	0	0	740	
5	251	59	0	1,870	28	106	24	0	1	2,339	
6	42	31	0	220	50	41	28	0	8	420	
7	328	121	36	218	32	62	58	0	0	855	
8	513	773	21	210	55	45	33	0	1	1,651	
9	469	173	0	205	32	53	29	0	0	961	
10	494	934	18	532	41	46	41	0	0	2,106	
11	292	80	0	175	65	14	30	0	0	656	
12	242	55	0	230	1,103	13	23	0	0	1,666	
계	건수	3,288	2,564	76	4,560	1,596	709	402	0	45	13,240
	비율	24.8%	19.4%	0.6%	34.4%	12.1%	5.4%	3.0%	0.0%	0.3%	100%

###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KBS 뉴스 9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날 손혜원 의원이 'KBS 뉴스 9'에 출연해서 10분 정도 자신의 의혹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명을 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뉴스에 출연시킨 뒤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손 의원의 투기의혹을 심층취재 후 보도해주기 바란다.	42
2월	아침마당	요일별로 특화된 주제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매일 아침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를 좋아하는데, 가수가 꿈이었던 사람들 혹은 무대가 없어 실망했던 사람들의 사연과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재미있다. 그런데 이날은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54
3월	도올아인 오방간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라 해도, 공영방송에서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옳지 않다. 파급력이 큰 공영방송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은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127
4월	KBS 뉴스특보	지난 4일 저녁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뉴스특보를 기다렸으나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그나마도 다른 정규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3시가 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다. 공영방송사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 바란다.	107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기자가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대통령의 답변을 끊고 기습 질문을 던지는 등, 몇몇 장면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대담이었던 만큼 실망도 컸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	1,378
6월	오늘밤 김제동	그날그날 중요한 이슈를 짚어주어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각종 정치 관련 이슈들을 비교적 쉽게 풀어주어 도움이 되지만,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진행자 김제동 씨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더 유능하고 공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47
7월	우리말 겨루기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서 자녀와 함께 시청한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 서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73
8월	사사건건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살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 본인이 교주 행세를 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1심 결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방송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전혀 관계없는 종교단체와 창시자 이름을 언급해서 방송을 보는데 불편했다. 앞으로 보도할 때는 주의해주기 바란다.	311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태양의 계절	양지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왕좌게임을 다뤘다. 줄거리가 흥미진진해서 매일 저녁 빠짐없이 시청했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 없이 방송해주시기 바란다.	175
10월	KBS 뉴스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다. 그런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속 시원한 해명이 아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시청자에게 모두 공개하고 해명해주시기 바란다.	243
11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관심 가지고 시청했다. 진행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제작을 MBC에서 담당했다고 하여 당황스러웠다. MBC에서 제작한 것을 똑같이 KBS가 동시 중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작하는 방송국에서만 편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123
12월	2019 KBS 가요대축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2019 KBS 가요대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신청을 했다. 중복신청이 가능해서 여러 차례 방청신청을 한 후 당첨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동반인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당황스럽다. 더욱이 동반인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몹시 난감하다. 당첨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527

## 4 월별 Top 10 의견

###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KBS 뉴스 9]	42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날 손혜원 의원이 'KBS 뉴스 9'에 출연해서 10분 정도 자신의 의혹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명을 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뉴스에 출연시킨 뒤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손 의원의 투기의혹을 심층취재 후 보도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32	평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이슈를 쉽게 풀어주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참신하다. 그러나 진행자의 자질에 의심이 생기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편파적 성향의 사람이 공정해야 할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마땅한지 늘 우려된다. 추후 개편 시에는 공정하고 보다 역량을 갖춘 진행자로 교체해 주기 바란다.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26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던 터라, 시즌 2 역시 기대를 품고 시청 중이다. 특히 박신양의 돋보이는 연기와 전개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날 기다리던 방송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날(7일)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는 전두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뤘다. 그런데 진행자가 방송 내내 '전두환 씨'라고 지칭해 듣기 안 좋았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마당에 갖가지 핑계로 재판을 회피하는 태도는 비판해야 마땅하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공영방송에서 '~씨'라 지칭하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2019 신년대토론 대한 민국, 새로운 100년]	16	3부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고통'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 세대의 고통을 짚어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등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패널들이 이러한 고통과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토론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고, 마음에 드는 대안도 나오지 않았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오늘밤 김제동]	15	매주 월요일마다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하는 '그건 그대 생각이요' 코너를 잘 보고 있다. 그런데 매번 진행자 김제동 씨는 전원책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진 뒤 본인과 견해가 다를 경우 흥분하며 반박하는데, 이는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진행자답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4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게 풀어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며 시청한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좋으나,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가 방송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김제동 씨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철저하게 방송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2TV [하나뿐인 내편]	13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가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매회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김도란(유이 분)을 향한 장다야(윤진이 분)의 질투심이 지나치고, 가진 자들의 갑질 또한 너무 악랄하게 그려져서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많다. 추후에는 극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1TV [2019 신년대토론 대한 민국, 새로운 100년]	12	'신년대토론'을 시청했다. 부의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비롯해 현재 전반적인 우리사회 분위기가 부자를 적폐로 몰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동정과 공감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감성만 앞세운 토론을 하기 보단, 소득격차를 인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개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1TV [비켜라 운명아]	12	매일 아침 시청하던 '차달래 부인의 사랑'이 지난주 금요일에 종영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후속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현재 1TV에서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의 재방송이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아침드라마를 챙겨보는 주부들을 위해 재미있는 후속극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아침마당]	54	요일별로 특화된 주제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매일 아침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를 좋아하는데, 가수가 꿈이었던 사람들 혹은 무대가 없어 실망했던 사람들의 사연과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재미있다. 그런데 이날은 '뉴스 특보' 편성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하나뿐인 내편]	31	이날 김도란(유이 분)은 아버지 강수일(최수종 분)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남편王大륙(이장우 분)과 이혼하게 됐다. 그 중심에 장다야(윤진이 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하는 유전자 검사, 블랙박스 절도, 범죄인 신상 취득 등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동으로 시청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개연성 없는 전개와 출생의 비밀 같은 억지 설정이 극을 지루하게 만든다. 추후에는 극이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2TV [하나뿐인 내편]	22	이날 장다야(윤진이 분)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강수일(최수종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로 인해 이제껏 모든 시련을 곳곳하게 버텨온 김도란(유이 분)에게 다시금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 같아 속상하다. 회가 거듭될수록 장다야의 캐릭터가 악랄해지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기 안 좋고,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극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20	이날은 손혜원 의원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SBS 보도를 통해 시작된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논란이, 일부 언론들로 인해 부풀리기에 매몰됐다는 내용이였다. 손혜원 의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인터뷰를 축소·왜곡했다며 일부 언론의 취재 방식만 문제 삼는 것은 편파적으로 여겨져 납득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0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어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유익하지만, 진행자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현정권과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비난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여겨질 때도 많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진행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원손잡이 아내]	17	충격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남자와 신혼여행지에서 사라진 남편을 찾아 헤매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흥미진진한 전개에 빠져 매 회 빠짐없이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은 설 특집 방송으로 인해 해당 드라마가 결방 되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의 역사를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모든 출연자가 한 목소리로 특정 언론사를 대놓고 비난하는 점이 보기 불편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본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2TV [설 특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0	자신을 꽤 좋은 상사라고 믿고 있는 보스와 직원들의 극과 극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참신한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한 점은 의외였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좋은 이미지를 쌓았으나, 이후 각종 구설수에 휩싸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몇몇 정치인이 떠올라 프로그램의 취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정치와 상관없이 시청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특정 정치인을 섭외하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9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5.18 왜곡 파문 이후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판 반 나치법의 핵심 쟁점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비판할 때가 많아 편파적으로 느껴졌고, 예전에 비해 날카로운 진행력이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아쉬웠다. 앞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을 시청자들을 위해 공정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2TV [비켜라 운명아]	8	매일 아침마다 KBS의 아침드라마를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그런데 'TV소설'에 이어 아침드라마까지 폐지되어 무척 서운하다. 아침드라마가 폐지된 자리에, 뜬금없이 현재 1TV에서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가 재방송되는 점도 의아하다. 아침드라마를 사랑하는 다수의 시청자들을 위해 재미있는 후속극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	127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라 해도, 공영방송에서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옳지 않다. 파급력이 큰 공영방송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은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102	오랫동안 '1박 2일'을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가수 정준영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와, 김준호·차태현의 내기 골프 의혹으로 인해 '1박 2일'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간 수없는 위기를 극복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수 예능프로그램이 몇몇 출연자의 잘못으로 폐지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기존 멤버들로 재정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멤버들을 섭외하여 '1박 2일'을 계속 유지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45	11일 오후,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 관심이 가는 뉴스인 만큼 온종일 KBS 뉴스를 시청했는데 '전두환 씨' 혹은 '전 씨'라고 지칭하는 점이 듣기 안 좋았다.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방송에서만만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편이 듣기 좋을 것 같다.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45	'해피 선데이'를 재미있게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그런데 '1박 2일'의 멤버인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멤버를 프로그램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주기 바란다.
기타 [라디오 상품 배송]	35	평소 KBS 라디오를 즐겨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좋은 음악과 청취자들이 보내온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본인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후 상품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선물문의 게시판에 당첨 정보를 기재한 뒤로 무려 석 달 가량이 지난 후에야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상품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추후에는 빨리 배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	31	이날 방송은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에 대해 강연을 하던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한 뒤,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공영방송에서 본인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본인의 주관에 담긴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28	정준영 몰카 논란에 이어, 차태현과 김준호까지 내기 골프 논란에 휩싸이며 '1박 2일'이 폐지 위기에 휩싸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오랜 시간동안 '1박 2일'을 사랑했던 시청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안겨주었던 프로그램인 만큼 논란을 일으킨 일부 멤버들을 교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출연진으로 교체하여 방송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
2TV [하나뿐인 내편]	24	이날 장고래(박성훈 분)에게 간 이식을 해준 강수일(최수종 분)이 끝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강수일이 살인전과자라는 소문이 병원에 퍼졌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자를 내쫓으려는 장면은 너무 매정하다.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쪼록 모든 등장인물들이 행복해지는 전개를 보여주길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22	매주 일요일마다 아빠들의 육아 도전을 다룬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방송이 시작되길 기다리며 TV 앞에 앉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0	중요한 이슈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그날의 이슈들을 짚어주는 점은 유익하다. 그러나 진행자 김제동 씨가 편파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또한 중요한 사안을 다룸에도 웃거나 가벼운 자세로 방송에 임해 보기 안 좋다. 하루빨리 김제동 씨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특보]	107	지난 4일 저녁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뉴스특보를 기다렸으나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그나마도 다른 정규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3시가 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다. 공영방송사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55	5년 전 이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 대다수의 국민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추모 분위기만 강조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물론 잊지 말아야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등한시하지 않길 바란다.
2TV [원손잡이 아내]	32	서로를 지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오산하(이수경 분)·이수호(김진우 분) 부부가 결국 서로를 알아보고 다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매 회 시청 중이다. 그러나 갈수록 복수, 거짓말,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고 보기 안 좋다. 지나친 악행은 자제하고,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31	노래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재미있게 보고 있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가슴 찡한 인생사와 추억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원손잡이 아내]	28	이날 조애라(이승연 분)가 오라 그룹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내용이 방영됐다. 조애라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강철(정찬 분)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링거에 약을 처방했다. 황금 시간 대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잔인한 내용이 그려져 우려스럽다. 지나치게 악한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KBS 뉴스특보]	27	KBS 재난 특보 중 현지 취재기자가 강릉방송국 주변에서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고성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여러 언론을 통해 접했다. 재난주관방송사이자 공영방송에서 중계 장소 오보가 일어난 건 무척 실망스럽다.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주관방송사답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20	이날은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꾸리게 될 이번 개각 인사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 등은 무엇인지 토론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본인과 본인이 속한 당을 홍보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상대 출연자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특히 최민희 前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동안 턱을 괴는 등 올바른 토론 자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앞으로 출연자들은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2TV [국민 여러분]	18	'국민 여러분' 첫회를 시청했다.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사기꾼인 양정국(최시원 분)이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이 과련 필요한 건가', '우리가 지하철을 바라는 이유는 집값 때문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우려가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은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특정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민감한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원손잡이 아내]	18	이날 장에스더(하연주 분)가 오산하(이수경 분)-이수호(김진우 분)를 따돌리고 찬희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런데 오산하가 찬희를 찾는 장면이 며칠에 걸쳐 그려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또한 장에스더가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반복되어 보기 불편하다. 밝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8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각종 정치 관련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주어 매일 저녁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는 편향된 성향을 지니고 있어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방송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제부터라도 김제동 씨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철저하게 방송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 5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 다]	1,378	문재인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기자가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대통령의 답변을 끊고 기습 질문을 던지는 등, 몇몇 장면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대담이었던 만큼 실망도 컸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1TV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 다]	271	이날은 문 대통령 집권 2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국정철학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라서 기대를 가지고 시청을 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민생 현안과 국정 구상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답변을 자르고 독재자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보기에 불편했다. 앞으로는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
2TV [원손잡이 아내]	105	지난주 방송 말미에 오산하가 아닌 오젼마로 완전히 변신한 이수경이 등장해서 극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이날 방송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무척 아쉬웠다. 오젼마라는 새로운 캐릭터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니, 앞으로 결방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56	재미있는 퀴즈 대결을 통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을 배울 수 있어 자녀들과 함께 빠짐없이 시청해왔다. 그런데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서는 유익한 프로그램인 만큼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TV쇼 진품명품]	35	오랫동안「TV쇼 진품명품」을 재미있게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고 싶어 감정의뢰를 했고, 한 달 후 전화를 걸었는데 제작진과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도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원손잡이 아내]	33	주인공 박수호(김진우 분)가 김남준(진태현 분)의 아내가 된 오산하(이수경 분)를 보고 충격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초반에도 박수호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사람과 얼굴이 바뀌는 설정에 다소 황당했었다. 그런데 오산하까지 기억을 잃고 오젼마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니 너무 당황스럽다.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2TV [닥터 프리즈너 압축판]	26	이날 '닥터 프리즈너'가 결방되고, 대신 70분짜리 스페셜 방송이 방영됐다. 배우들의 열연과 긴박한 전개로 매회 가슴 졸이며 시청해왔는데, 갑자기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되어 당황스러웠다. 시청자들의 극에 대한 몰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23	패스트트랙 여파로 인한 국회 파행과 극한 대치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해법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특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다른 출연자의 말을 자르고 본인 의견만 주장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해 보기 안 좋았다.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9	최근 현장에 출동한 한 여성 경찰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관련 뉴스를 다루며 보여준 영상에는 여성 경찰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편집돼 있었다. 이는 원본 영상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만 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진행자 김제동 씨와 유 이사장은 정치색이 너무 강한 인물들이다.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므로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6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오늘밤 김제동]	47	그날그날 중요한 이슈를 짚어주어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각종 정치 관련 이슈들을 비교적 쉽게 풀어주어 도움이 되지만,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진행자 김제동 씨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더 유능하고 공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2TV [연예가 중계]	28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 마약 논란 파문을 다뤘다. 한서희에게 양현석의 진술번복 강요가 있던 날, 워너 멤버 이승훈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때 방송에서 이승훈을 YG 간부라 지칭했는데, 이는 팬들 사이에서의 별명일 뿐 실제 직책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6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평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시청한다. 그런데 균형감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김제동 씨가 적격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방송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렵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김제동 씨는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4	얼마 전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했다. 비단 이번 논란뿐 아니라, 김제동 씨는 과거에도 '군대 영창 발언'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을 믿고 시청할 수 있도록 보다 역량을 갖춘 진행자가 진행을 해주었으면 한다.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4	농어촌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시청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은「뉴스특보」편성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여름아 부탁해]	14	왕금희(이영은 분)가 고교 동창 주상미(이채영 분)가 자신의 남편 한준호(김사권 분)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충격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불건전한 전개에 당황스러웠다. 불륜, 이혼 등 너무 과한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9	정년 연장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년 연장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대변할 젊은 층이 출연하지 않은 점이 공정하지 않았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젊은 층이 토론자로 참여했더라면 더 의미 있는 토론이 되었을 것 같다.
1TV [토론쇼 시민의회]	9	이번 의제는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그런데 엄연한 분단국가에서 병역특례제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게 느껴졌다. 군 복무의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 없이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1TV [특집 KBS 뉴스 5]	8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헝가리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청했다. 그런데 최하빈 동시통역사가 자주 머뭇거리고 통역을 제대로 못 해 시청 내내 답답했다. 통역은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앞으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좀 더 전문가답게 임해주기 바란다.
1TV [여름아 부탁해]	8	이날 주상미(이채영 분)가 고교동창의 남편인 한준호(김사권 분)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준호의 아이까지 갖는 장면이 그려졌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남편을 뺏는다는 설정이 너무 과해 보기 안 좋았다. 일일연속극답게 밝고 건전한 내용으로 재미를 주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우리말 겨루기]	73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서 자녀와 함께 시청한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 서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68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이른바 '5NO 운동'을 보도했다. 그런데 보도 중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를 활용해 만든 'N안 뽑아요', 'N안 봐요'의 이미지가 앵커 뒤 배경화면에 사용되어 당황스러웠다.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긴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2TV [개그 콘서트]	66	매주 일요일마다 「개그 콘서트」를 시청하며 한 주를 마무리한다. 다양한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43	전국 각 지방을 돌며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방송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재미있다. 이날 역시 온 가족이 모여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도전, 골든벨]	32	일요일마다 자녀와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퀴즈를 푸는 동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유익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유벤투스FC 초청축구 친선경기]	31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KBS에서 중계를 해주어 기대를 품었는데,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경기 개시 시간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그뿐 아니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아쉬움은 더욱 컸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그 명성에 걸맞은 매너를 보여주었다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기타 [1FM 다시듣기 서비스 중단 관련]	25	오랜 기간 KBS 라디오 1FM을 사랑해온 애청자이다. 지난 1일부터 1FM 채널의 다시듣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관계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다시듣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수많은 청취자들을 위해 다시듣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1TV [여름아 부탁해]	22	이날 한준호(김사권 분)가 불륜녀 주상미(이채영 분)를 택하고, 아내 왕금희(이영은 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한준호가 마음을 다잡고 가정을 지키길 바랐는데, 너무도 불건전한 전개에 당황스러웠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일일연속극답게 밝고 건전한 내용으로 재미를 주기 바란다.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밤사이 일어난 따끈따끈한 소식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어 매일 아침 시청한다. 강승화-이승현 아나운서의 활기찬 진행도 보기 좋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에는 결방 없이 제대로 방송해주었으면 좋겠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16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날 한일 관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토론했다. 그런데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의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국의 입장을 우선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사사건건]	311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살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 본인이 교주 행세를 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1심 결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방송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전혀 관계없는 종교 단체와 창시자 이름을 언급해서 방송을 보는데 불편했다. 앞으로 보도 할 때는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TV [사사건건]	173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살해한 피의자가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는 특정 종교단체와 창시자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해당 종교를 믿는 교인 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속히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특집 KBS 뉴스 9]	109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집회와 현 정부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반일 집회는 길게 보도한 반면 태극기 집회는 짧게 보도했다. 또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 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 타 언론에서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를 경찰 추산 4만 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의아했다.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97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매주 시청 중인데, 지난 주에 이어 이날도 결방을 했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사사건건]	90	매일 오후 시청한다. 각종 시사 이슈를 정치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분석해주어 유익하다. 그런데 이날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너무 서운했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 없이 방송해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사사건건]	79	<p>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 살해한 피의자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방송됐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없는 종교단체와 창시자 이름이 언급 됐다.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 추후 해당 종교단체에 정중하게 사과해주시기 바란다.</p>
1TV [특선 노래가 좋아]	54	<p>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가슴 찡한 인생사까지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다. 이날은「특선 노래가 좋아」로 꾸며진다고 하여 기대를 품고 시청했는데, 재방송이 방영되어 실망스럽다. 가급적이면 본방송 시간에 재방송을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p>
2TV [개그 콘서트]	53	<p>매주 다채로운 코너들을 통해 웃음을 선사해준 「개그 콘서트」의 오랜 시청자이다. 새로운 웃음을 전하기 위해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2주 연속 결방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고 지루하다. 하루빨리 재정비를 마친 후, 앞으로는 결방 없이 제대로 방송되길 바란다.</p>
1TV [도전 골든벨]	46	<p>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퀴즈를 푸는 동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자녀와 함께 시청한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 2주째 결방이 되어 너무 서운했다. 2주 연속 결방은 고정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편성인 것 같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길 바란다.</p>
1TV [열린음악회]	36	<p>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되는 「열린음악회」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를 통해 매 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해주어 늘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많이 아쉬웠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태양의 계절]	175	양지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왕좌게임을 다뤘다. 줄거리가 흥미진진해서 매일 저녁 빠짐없이 시청했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56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질문에는 모른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답답했다. 긴 시간을 할애해 기자간담회를 편성한 의미가 없어 보여 아쉬웠다.
1TV [한국당, 조국 반박 간담회]	55	이날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KBS를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중계한 뒤 곧바로 정규 방송으로 넘어가서 의아했다. 지난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장시간 중계한 것에 비해 너무 짧은 편성이 아쉬웠고,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져 마음이 불편했다.
2TV [태양의 계절]	48	탄탄한 내용 전개와 중견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매회 몰입하며 시청 중이다. 그런데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해 해당 드라마가 이틀 연속 결방 되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36	전국 각 지방을 돌며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방송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재미있다. 이날 역시 온 가족이 모여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추적 60분]	31	36년간 각 분야의 이슈를 추적해온 「추적 60분」이 1326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고, 각종 비리와 맞서 싸웠던 좋은 방송이 사라져서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조만간 해당 방송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2TV [중계방송]	27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했다. 그런데 오전에는 1TV에서 중계하다가 오후에는 2TV에서 중계해서 혼란스러웠다. 또한 2TV에 편성되어 있던 기존 프로그램들이 대거 방송되지 않았던 점도 굉장히 아쉬웠다. 인사청문회 중계는 1TV에서 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TV [사사건건]	26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토론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너무 흥분한 채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진행자 또한 지나치게 과열된 표창원 의원을 제지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 표창원 의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2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의 인사 검증 보도를 다뤘다. 패널들은 인사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수 언론을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2주 동안 인턴을 한 후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는 법을 어겨서 실망한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방송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1TV [가요무대]	19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화요일에 재방송을 꼭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재방송이 결방 되어 너무 아쉬웠다.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기타 [KBS 뉴스]</p>	<p>243</p>	<p>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다. 그런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속 시원한 해명이 아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시청자에게 모두 공개하고 해명해주기 바란다.</p>
<p>1TV [KBS 뉴스 9]</p>	<p>187</p>	<p>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날 9시 뉴스에서 증언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으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해명 보도로도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므로, 인터뷰 영상 공개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소명해주기 바란다.</p>
<p>1TV [KBS 뉴스 9]</p>	<p>176</p>	<p>3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복궁 앞에서부터 시청광장을 지나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너무 짧게 보도 되어 의아했다. 또한 순수한 시민들을 보수 단체로 몰아가는 것도 보기 불편했다.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p>
<p>1TV [시사 직격]</p>	<p>172</p>	<p>이날 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나카노 아키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신문 해설위원이 출연해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극우 성향 패널들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한 점,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방송을 제작한 점이 실망스럽다. 게다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답변도 부적절하다.</p>
<p>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p>	<p>138</p>	<p>주말마다 해당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중계로 인해 해당 드라마의 편성이 지연됐다. 편성 시간에 맞춰 해당 드라마를 기다리던 시청자 입장에서는 몹시 실망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편성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여름아 부탁해]	120	조강지처 왕금희(이영은 분)를 버리고 주상미(이채영 분)와 재혼한 한준호(김사권 분)가 다시 왕금희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그려져 극의 긴장감이 최고였다. 다음 회차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기타 [KBS 뉴스]	10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KBS 법조팀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KBS에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고 즉각 해명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씨의 진술을 놓고 KBS와 유 이사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해주기 바란다.
2TV [조선로코 녹두전]	75	이날 「조선로코 녹두전」이 2019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중계로 인해 결방 되었다.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와 젊고 신선한 배우들의 연기에 매력을 느껴 열심히 시청했는데, 갑자기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시사 직격]	62	이날은 한일 관계의 막힌 출구를 찾기 위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 일본의 리버럴 세력과 우익을 대표하는 신문사의 특파원 출신 한일 관계 전문 기자들이 모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본의 주장과 시각이 강조된 대화 내용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방송을 제작한 것에 많이 실망스러웠다.
1TV [KBS 뉴스 12]	57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KBS 여기자 성희룡 발언이 나왔다. 이에 KBS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 이사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니 KBS에서도 유 이사장이 언급한 검찰과의 유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123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관심 가지고 시청했다. 진행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제작을 MBC에서 담당했다고 하여 당황스러웠다. MBC에서 제작한 것을 똑같이 KBS가 동시 중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작하는 방송국에서만 편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참고해주기 바란다.
2TV [태양의 계절]	122	한 재벌가문을 둘러싸고 사랑과 배신, 복수와 애증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드라마로 매일 저녁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결방이 잦아 너무 아쉽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5	지난달 31일, 독도경비대 헬기장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이륙 2~3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KBS에서 추락사고 직전 소방헬기의 마지막 비행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 KBS가 사고 영상을 찍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TV [가요무대]	14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월말 신청곡 코너로 꾸며져,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해당 방송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꽃길만 걸어요]	13	강여원(최윤소 분)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하나음료 인턴사원에 채용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봉천동(설정환 분)과의 인연이 시작될 것 같아 기대 중인데, 이날 해당 드라마가 결방 되어 무척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정치합시다]	13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출연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다가올 2020년 총선 전망 등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나눴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KBS와 관련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KBS에서 유 이사장을 섭외한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1TV [노래가 좋아]	13	마침내 이날 '트로트가 좋아'의 결승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6주간 매회 트로트 고수들의 막상막하 경연 무대를 볼 수 있어 즐거웠다. 특히 최종 우승을 차지한 '전통가요 지킴이' 조명섭 씨의 무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KBS에서 이런 특집을 통해 전국의 숨은 트로트 고수들을 많이 발굴해주어 감사하다.
1TV [KBS 뉴스 9]	12	KBS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영상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날 9시 뉴스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 사과도 했다. 그러나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으므로, 왜 영상을 처음부터 독도경비대에 전면 제공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1TV [정치합시다]	12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 이사장은 여러 차례 실언 논란이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또한 KBS 기자와 검찰이 내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을 KBS에서 섭외하는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이날 방송에서는 정치보도의 관행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조중동만 비난하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자유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해서 몹시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2019 KBS 가요대축제]	527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2019 KBS 가요대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신청을 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해서 여러 차례 방청신청을 한 후 당첨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동반인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당황스럽다. 더욱이 동반인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몹시 난감하다. 당첨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2TV [2019 KBS 가요대축제]	274	「2019 KBS 가요대축제」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어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신청을 했고 당첨이 됐다. 그런데 신청할 때 기재한 동반인만 입장이 가능한데, 누굴 기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 시 기재한 동반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 당첨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2TV [2019 KBS 가요대축제]	221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질「2019 KBS 가요대축제」에 가고 싶어 방청신청을 했다. 2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기다리는데 불편했다. 또한 중복 신청이 가능해서 여러 번 신청을 했으나, 정작 동반인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당첨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43	아내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시청했다. 그런데 이날부터 오후 9시 15분으로 편성 시간을 옮겨서, 다음 날 등교하는 어린 자녀들은 시청이 어렵게 되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원래 시간으로 편성을 옮겨주기 바란다.
1TV [시사 직격]	4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정치 행보를 집중분석했다. 해당 방송은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인은 자발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점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전 목사나 전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도 반영되었더라면 더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스페셜]	38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역시 김청아(설인아 분)·김설아(조윤희 분) 자매의 9년이 요약되어 방송 됐다. '스페셜'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었는데, 그동안 방영됐던 이야기들의 주요장면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서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는 본방송을 결방 시키고, 스페셜 방송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TV [2019 KBS 연예대상]	29	기대를 품고 「2019 KBS 연예대상」을 시청했다. 평소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아서 뿌듯했다. 다만 방청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 점, 전화투표 없이 문자투표로만 진행되는 점 등이 고령의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했다. 모든 연령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스페셜]	26	이날 방송은 그동안 방영됐던 이야기들의 주요장면만 모아놓은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최근 김청아(설인아 분)와 구준휘(김재영 분) 커플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는 재방송이나 다를 바 없는 스페셜 방송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TV [일요일은 단 라이브]	22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래서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출연해,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진행자의 중재에도 본인의 주장만 이어나가 보기 불편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7	지난 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그래서 이날은 김 회장을 미화하는 부고 기사 및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그런데 패널들이 모두 대기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무시한 채, 재벌의 피해만을 언급하는 면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기 불편했다.

# 3

##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 1

#### 주요의견 선정 기준

#####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 2

##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

# 시 청 자 상 담 일 일 보 고 서

---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신뢰·창의·혁신

2019. 3. 13.[수]

#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13.)

■ KBS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000, 2690)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19. 3. 12.(화) 06:00 ~ 2019. 3. 13.(수) 06:00
- 상담건수: 1,359건
- 주요의견: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출연자 섭외 제언(45명)

##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해피 선데이-1박 2일」  
방송일시 : 2TV (일) (17:00-19:55)

- 상담의견 : 출연자 섭외 제언(45명)

‘해피 선데이’를 재미있게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그런데 ‘1박 2일’의 멤버인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멤버를 프로그램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주기 바란다.

※ 참고: 6p 본문 참조.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2500원 수신료 인상하지 마세요.”
  - “KBS어린이 합창단을 존속시켜 주세요.” 등 5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359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1)</sup>	계
822	26	-	-	511	1,359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35	459	20	-	1	244	1,359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352	1007	-	1,359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005	34	118	202	1,359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편성 제언</p> <p><b>【보 도】</b> ○「KBS 뉴스」 - 보도 제언 ○「오늘밤 김제동」 - 진행자 제언</p> <p><b>【시사교양】</b>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방송 제언</p> <p><b>【연예.오락】</b> ○「해피 선데이-1박 2일」 - 출연자 섭외 제언</p> <p><b>【라디오】</b> ○「뉴스 중계탑」 - 진행자 호평 ○「김원준의 라디오스타」 - 진행자 제언</p>	<p><b>【방 송】</b> ○「2TV 생생정보」 - ‘갈비찜 &amp; 갈비탕’ 연락처 문의 57건 ○「사사건건」 - ‘진행자 및 출연자’ 문의 41건 ○「해피 선데이」 - ‘출연자 섭외’ 제언 및 문의 38건 ○「6시 내고향」 - ‘문경전통참옷된장마을’ 연락처 문의 36건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출연자 발언’ 제언 및 문의 35건 외 673건</p> <p><b>【기 술】</b> ○「수신료 및 난시청」문의 29건 ○「수신기술」문의 5건</p> <p><b>【경 영】</b> ○「홈페이지」문의 67건 ○「프로그램구입」문의 30건 ○「전화교환」문의 15건 ○「사업 및 행사」문의 3건 ○「주차」문의 3건</p> <p><b>【기 타】</b> ○ 한전 문의사항 외 201건</p>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편성 제언	<p>○「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19명)            - 2019. 3. 12.(화) 1TV (10:00-10:40)            -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KBS에서 생중계 해주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발언할 때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여 연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이렇게 정당끼리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중계해주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b>※의견제시자 : 익명 외</b></p> <p>※ 참고: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기타의견 총 17건 인입.(나경원 의원 발언 호평 2건, 나경원 의원 발언 불만 2건, 정치적 불만 등 개인적인 의견 3건, 단순문의 4건, 기타 5건.)</p>
[ 보 도 ]	
보도 제언	<p>○「KBS 뉴스」(45명)            - 2019. 3. 11.(월) 1TV            - 11일 오후,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 관심이 가는 뉴스인 만큼 온종일 KBS 뉴스를 시청했는데 ‘전두환 씨’ 혹은 ‘전 씨’라고 지칭하는 점이 듣기 안 좋았다.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방송에서만 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편이 듣기 좋을 것 같다.  <b>※의견제시자 : 익명 외</b></p> <p>※ 참고: KBS 뉴스 관련 기타의견 총 8건 인입.(‘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점 불만 5건, 앵커와 기자가 호칭을 통일하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전두환 씨’로 혼용해 지칭한 점 불만 3건.)</p>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제언	<p>○「오늘밤 김제동」'전두환 39년만의 광주법정 출석'(1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3. 11.(월) 1TV (23:00-23:40)</li> <li>-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어 참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날 진행자 김제동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법정 출석 뉴스를 전달해 주던 중 '전두환 씨'라고 지칭한 점이 듣기 안 좋았다. 그리고 현 정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점도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답게 공정한 진행을 부탁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시사.교양 ]	
방송 제언	<p>○「무엇이든 물어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TV (월-금) (10:00-11:00)</li> <li>-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주부 시청자이다. 스튜디오에 전문연사를 초대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어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전문연사가 중요한 설명을 했을 때, 방청객의 호응 소리가 너무 크고 인위적으로 들려 집중을 저해한다. 앞으로는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청객의 호응 소리를 조금 줄여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 연예.오락 ]	
출연자 섭외 제언	<p>○「해피 선데이-1박 2일」(4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TV (일) (17:00-19:55)</li> <li>- ‘해피 선데이’를 재미있게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그런데 ‘1박 2일’의 멤버인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멤버를 프로그램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lt;부서답변&gt; 정준영 씨 관련 1박2일 제작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제작진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준영 씨의 1박2일 출연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2회 분량의 방송분도 정준영 씨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 방송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p>
[ 라디오 ]	
진행자 호평	<p>○「뉴스 중계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R (월-금) (14:00-14:30)</li> <li>- 그날의 주요 사건 사고는 물론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곁들여 주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재익 진행자가 하루의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는 점이 무척 유익하게 느껴진다. 늘 청취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제언	<p>○「김원준의 라디오스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3. 12.(화) 2R (18:00-20:00)</li> <li>- 매일 오후 퇴근길에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본인은 ‘박중훈의 라디오스타’ 시절부터 방송을 들어온 오랜 청취자인데, 김원준 씨가 박중훈 씨에 비해 너무 딱딱하게 진행을 해서 재미가 떨어진 다. 또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라서 축 쳐지는 기분이다.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힘겨운 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 조금 더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29 건 (방송기술 관련 8p 참고)</p>

3. 시청자상담 통계(2019. 3. 12.~ 3. 13.)

(단위: 건)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42			-	42	
보도	281			2	283	
스포츠	-			-	0	
교양	499			2	501	
예능	124			4	128	
드라마	28			2	30	
라디오	20			-	20	
인터넷 방송	1			-	1	
계	995	0	0	10	1,005	

○ 기술

수신료 및 난시청	29			-	29	
수신기술	4			1	5	
주파수	-			-	0	
디지털전환	-			-	0	
DMB	-			-	0	
계	33	0	0	1	34	

○ 경영

전화교환	15				15	
사업 및 행사	3				3	
견학	-				0	
주차	3				3	
프로그램 구입	30				30	
홈페이지	67				67	
계	118	0	0	0	118	

○ 기타

기타	187	-	-	15	202	
계	187	0	0	15	202	

## 4

# 상담내용 분석

## | 1. 편성 |

### ○ 1TV 「인간극장」'신년기획 제1편 백년을 살아보니 - 철학자 김형석'

- 이번 주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였다. 백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겨울에도 수영과 산책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모습에 자극도 받고 많이 배웠다. 방송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보고 싶으니,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 1TV 「기억, 마주서다」'5부 해원'

-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다룬 방송이었다. 그 피해자가 무려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방송을 통해 이름 없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울분에 찼다. 민간인들의 잊힌 죽음을 조명해 주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 1TV 일일연속극「비켜라 운명아」

- 매일 아침 시청하던 '차달래 부인의 사랑'이 지난주 금요일에 종영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후속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현재 1TV에서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의 재방송이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아침드라마를 챙겨보는 주부들을 위해 재미있는 후속극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 1TV 「2019 아시안컵」

- 지난 6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2019 아시안컵'이 개최됐다. 현재 우리나라 축구팀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항전을 공영방송인 KBS에서 중계하지 않는 점이 의아하다. 유료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아서 종합편성채널을 볼 수 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KBS에서 주요경기는 중계해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 1TV 「아침마당」

- 요일별로 특화된 각각의 주제로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일 아침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특히 남녀 아나운서의 매끄럽고 재치 있는 진행이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그런데 방송을 놓치게 되는 날이 종종 있다. 그러나 '아침마당'은 재방송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2월 15일 보고서>

### ○ 1TV 「특별 기획 드라마 브렉시트, 치열한 전쟁」

- 영국의 EU 탈퇴 찬반 투표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 '브렉시트, 치열한 전쟁'을 KBS에서 더빙 방영해 주었다. 영국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역사적인 유럽연합탈퇴를 다룬 드라마라서 무척 흥미진진했다. 더욱이 KBS의 더빙 수준이 높아서 보는 재미를 더했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시청하고 싶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 1TV 「3·1운동 100주년 특집 그날이 오면」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실제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재현한 드라마다. 100년 전,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기적 같은 그 날의 역사를 재조명해주어 무척 고마웠고, 보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동받았다. 해당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KBS에서 생중계 해주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발언할 때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여 연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이렇게 정당끼리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중계해주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지난 4일 저녁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뉴스특보를 기다렸으나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그나마도 다른 정규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3시가 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다. 공영방송사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과학의 달 특집 독과 약」**

- 독에서 약을 구한 기초과학자들의 집념과 노력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고 해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방송 시간에 '새와 야생동물 페스티벌수상작'이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편성 변경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KBS가 이를 생중계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불자가 참석해 이날의 뜻을 기리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다만 KBS가 특정 종교의 행사를 생중계하는 것은 조금 의아했다. 유독 불교 행사만 중계하는 점이 자칫 편향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5월 13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더불어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등 다양한 유물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 방송시간보다 일찍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편성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스페셜」**

- 매주 월요일마다 가요무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사전 안내 없이 재방송이 방송되었고, 게다가 방청객들이 겨울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어서 여름이 더 덥게 느껴졌다. 재방송을 하더라도 계절에 맞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7월 24일 보고서>

○ **1TV 「KBS제작 다큐멘터리」'지옥의 섬, 군함도'**

- 지난 2010년 8월 「역사스페셜」에서 방송되었던, 일본 하시마 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지옥과 같은 가혹한 노동과 생활로 인해 지옥섬이라 불렸던 군함도를 조명해주어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아프리카돼지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발병하며 비상이 걸렸다. KBS에서도 이를 연속으로 「뉴스특보」를 편성하여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런데 본인을 비롯해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 중인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속되는 특보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먹더라도 사람에게는 안전하다. 지나친 특보 편성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태풍 타파’

-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에서 이날 온종일 특보를 편성하여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감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온종일 특보만 편성한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자막 등을 통해 태풍 상황을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다. <9월 23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여름아 부탁해」

- 조강지처 왕금희(이영은 분)를 버리고 주상미(이채영 분)와 재혼한 한준호(김사권 분)가 다시 왕금희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그려져 극의 긴장감이 최고였다. 다음 회차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바보들의 행진’

- 2019년 한국영화 탄생 100년을 맞이해, 한국영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을 소개해주었다. 해당 방송을 통해 70년대 청년문화를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중장년층에게 의미 있는 영화를 편성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 1990년부터 첫 회 방송 이래 17년 동안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는 농촌 드라마이다. 요즘에는 전원 드라마를 접하기 어려워 특히나 다시 시청하고 싶다. 농촌의 따뜻함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11월 11일 보고서>

○ 1TV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관심 가지고 시청했다. 진행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제작을 MBC에서 담당했다고 하여 당황스러웠다. MBC에서 제작한 것을 똑같이 KBS가 동시 중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작하는 방송국에서만 편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11월 20일 보고서>

○ 1TV 「정치합시다」

- 새로 시작한 정치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출연한 첫 회를 관심 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하차 통보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고, 우려했던 대로 이날 결방이 됐다. 다른 보수 패널을 영입해서 속히 프로그램을 재개해주시기 바란다. <12월 2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왜그래 풍상씨」**

- 동생 바보로 살아온 중년 남자 풍상 씨와 그의 동생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따뜻한 드라마이다. 그런데 유독 이 드라마가 재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 낮에도 같은 회 차 재방송을 시청했는데, 저녁 시간에 또다시 재방송이 편성된 점이 너무 의아하다. 목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걸맞은 재미있는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2TV 「다큐멘터리 3일」'고향 가는 길,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72시간'**

- 2019년 설 연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방송이었다. 그런데 설 연휴 이후 보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재방송을 편성할 시, 해당 방송이 시기적절하지 고려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가요 쇼 프로그램이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기 위해 해당 방송을 시청할 것이다. 그런데 주요 시청자가 청소년들인데 방과 후 해당 방송을 시청하려면 시간이 조금 빠듯하다.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 시간을 조금 늦춰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TV 「3.1운동 100주년 특집전야제 -100년의 봄-」**

-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BS가 함께 하는 특별한 문화 축제를 생중계 해주었는데,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3.1운동의 의의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뮤지컬 배우, 가수, 국악인 등 화려한 출연진이 보는 재미를 더했다. 해당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오랫동안 '1박 2일'을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가수 정준영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와, 김준호·차태현의 내기 골프 의혹으로 인해 '1박 2일'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간 수없는 위기를 극복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수 예능프로그램이 몇몇 출연자의 잘못으로 폐지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기존 멤버들로 재정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멤버들을 섭외하여 '1박 2일'을 계속 유지해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2TV 「왕가네 식구들」**

- 3대가 함께 생활하는 왕 씨 가족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갈등, 부모의 편애에 대한 자식들의 갈등 등을 그린 드라마이다. 현실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담아내어 매우 재미있게 시청했다.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2TV 「2019 세계 피겨스타초청 아이스쇼」**

- 이날 KBS를 통해 '2019 세계 피겨스타초청 아이스쇼'를 시청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그리고 은반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아름다운 무대를 볼 수 있어 가슴 벅찼다.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의 환상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스쇼를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4월 22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닥터 프리즈너 압축판」**

- 이날 '닥터 프리즈너'가 결방되고, 대신 70분짜리 스페셜 방송이 방영됐다. 배우들의 열연과 긴박한 전개로 매회 가슴 졸이며 시청해왔는데, 갑자기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되어 당황스러웠다. 시청자들의 극에 대한 몰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5월 7일 보고서>

○ **2TV 「2019 FIFA U-20 월드컵 8강전」'대한민국:세네갈'**

- 이날 대한민국 U-20 축구국가대표팀이 세네갈을 승부차기 혈투 끝에 3-2로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축구 중계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 새벽 시간 편성으로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다. 새벽에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6월 10일 보고서>

○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가수 지망생 오복실(조아영 분)이 온갖 삶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꿈을 이루는 내용이었다. 자극적인 전개나 톱스타 없이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해당 드라마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6월 26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밤사이 일어난 따끈따끈한 소식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어 매일 아침 시청한다. 강승화-이승현 아나운서의 활기찬 진행도 보기 좋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에는 결방 없이 제대로 방송해주었으면 좋겠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중계방송」'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했다. 그런데 오전에는 1TV에서 중계하다가 오후에는 2TV에서 중계해서 혼란스러웠다. 또한 2TV에 편성되어 있던 기존 프로그램들이 대거 방송되지 않았던 점도 굉장히 아쉬웠다. 인사청문회 중계는 1TV에서 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9월 9일 보고서>

○ **2TV 「추석 특집 안녕하세요 스페셜」**

- 다양한 출연자들의 독특한 고민을 듣는 게 재미있어서 매 회 즐겁게 시청 중이다. 마침 이날 추석 특집이 방송된다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그러나 역대 사연들을 다시 편집해 보여줄 뿐이어서 굉장히 실망했다. 특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롭고 신선한 사연을 소개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조선로코 녹두전」**

- 이날 「조선로코 녹두전」이 2019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중계로 인해 결방 되었다.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와 젊고 신선한 배우들의 연기에 매력을 느껴 열심히 시청했는데, 갑자기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 주말마다 해당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중계로 인해 해당 드라마의 편성이 지연됐다. 편성 시간에 맞춰 해당 드라마를 기다리던 시청자 입장에서는 몹시 실망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편성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월 28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박성훈 편'

- 대한민국을 들썩인 트로트 작곡가 박성훈 편이 방송되었다. 무척 재미있게 시청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싶은데, 해당 프로그램은 재방송 편성이 일정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 해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5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있고, 무대 사이사이에 MC 유희열과 대화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금요일 늦은 시간 대 편성으로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쉽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1월 26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일요일 저녁이면 어린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모여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런데 오는 8일부터 밤 9시 15분으로 방송 시간대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늦은 시간이라 아이들은 시청이 어렵다. 12세 이상 관람가인 프로그램은 아이들도 시청 가능한 시간으로 편성해주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스페셜」

- 이날 방송은 그동안 방영됐던 이야기들의 주요장면만 모아놓은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최근 김청아 (설인아 분)와 구준휘(김재영 분) 커플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는 재방송이나 다를 바 없는 스페셜 방송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2월 30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매일 저녁 '열린토론'을 청취한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 유익하다. 다만 저녁에 했던 방송을 새벽에 재방송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새벽 시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5월 3일 보고서>

○ 1R 「KBS뉴스광장(R)」

-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는데 방송시간이 TV에 비해 짧아서 아쉽다.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본인과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뉴스 방송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 <7월 23일 보고서>

○ 한민족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우리 역사를 재미있게 다뤄주어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처럼 자세히,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 역사를 다뤄주는 방송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청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청취자들에게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므로, 많은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대를 변경해 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을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간 편성으로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뿐 아니라 재방송까지도 새벽에 편성되어 있어 청취하는데 불편하다. 본방송이나 재방송 중 하나라도 오전 혹은 낮 시간대에 편성해주기 바란다. <9월 25일 보고서>

서>

○ 기타 「2019 아시안컵」

- 지난 6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2019 아시안컵'이 개최됐다. 현재 우리나라 축구팀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항전을 공영방송인 KBS에서 중계하지 않는 점이 의아하다. 유로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아서 종합편성채널을 볼 수 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KBS에서 주요경기는 중계해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기타 「강원도 산불 피해 모금방송」

- 지난 4일,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강원도 산불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보탬 수 있도록,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모금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9일 보고서>

○ 기타 「재방송 편성 불만」

-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인 KBS를 즐겨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방송 편성이 너무 많아 실망스럽다. 특히 TV를 많이 시청하는 주말일수록 재방송 편성이 더욱 많고,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 편성표를 살펴보니 오전 내내 재방송뿐이다.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속히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기타 「6.25 전쟁 특집 프로그램 편성 요청」

-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 되는 해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군인과 국내외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전쟁이다. 그런데 공영 방송에서 6.25 전쟁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집 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6월 26일 보고서>

○ 기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12일 개막했다. 전 세계인의 수영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굉장히 영광스럽다. 그런데 KBS에 중계 일정이 전혀 없는 점이 아쉽고 의아하다. 전 세계 수영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것을 물론, 처음으로 열리는 종목까지 등장한다고 하니 주요 경기라도 중계해주기 바란다. <7월 16일 보고서>

## | 2. 제작 요청 |

○ 1TV 「클래식 오디세이」

- 국내외 클래식 스타들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었다. 클래식의 매력을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안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당 방송이 종료되어 너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 <1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되는 등, 수도권은 지금 숨 쉬기도 두려운 회색 도시로 변해버렸다. 산소 농도의 미세한 차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이런 최악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해 정부와 언론에서 대응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뉴스에서 앞장서서 미세먼지 수준 확인법이나 적절한 행동요령 등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건강, 음식, 경제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평소 궁금했던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다. 천식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 속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질환이라고 한다. 방송에서 천식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을 소개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라인」

- 본인은 매일 밤 '뉴스라인'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시청자이다. 오랜 시간 심야를 책임져온 프로그램인데 폐지되어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해당 방송을 통해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늘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시청자이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 서는 프로그램이라서 무척 유익하다. 한편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며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언어 소통 문제로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 언어습득 지체를 겪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기획도 틈틈이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3월 7일 보고서>

○ 1TV 「소비자리포트」

-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29일 보고서>

○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

- 도올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 우리나라 근현대사 100년을 재조명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색다른 프로그램이었다. 다른 분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미처 몰랐던 역사에 대해 깨닫게 되어 유익했는데, 방송이 종료되어 아쉽다. 시즌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통일로 미래로] 탈북민 세계챔피언...후원자 없어 발 동동'

- 북한 출신의 권투선수이자, 국내 유일의 권투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최현미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후원금 부족으로 운동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며 무척 안쓰러웠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 세계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들이 제작한 고급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매번 방송을 보며 대자연의 위대함과 생태계의 신비로움에 감탄한다. 그런데 최근 사자, 곰, 개, 돼지, 원숭이 등 계속 육지 생물들만 소개하는데, 바다 속 생태계도 무척 궁금하다. 앞으로는 신비로운 바다 생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환경스페셜」

- 위기에 처한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홍콩에서 100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이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의 2차 심사를 추진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위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시위라고 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앞으로 시위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쯤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8일 보고서>

○ 1TV 「전국이장회의」

- 전국 9도의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이슈를 놓고 토론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외의 소식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해당 방송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증명되어 안타깝고,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4일 보고서>

○ 1TV 「바른 말 고운 말」

- 요즘 외래어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상에서 새로 생겨난 외계어 등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이 오염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2015년에 증명된 「바른 말 고운 말」을 다시 제작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퀴즈 대한민국」

- 최근 일반인이 출연할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 얼마 없다. 그마저도 연예인 특집, 외국인 특집 등으로 바뀌며 일반인이 출연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퀴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짊어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퀴즈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여 실력 있는 일반인들을 양성해주기 바란다. <8월 14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시청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일상에서 접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추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추적해 알려주는 점이 좋았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8월 23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 역사, 자연,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시청자들에게 지식과 감동을 선사해주었던 프

로그램이다. KBS의 상징과도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지난 달 막을 내려 아쉽고 안타깝다. 추후에도 후속 방송을 제작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10월 2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갓난아기를 내동댕이?...신생아실서 무슨 일이'

- 지난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던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다뤘다. 병원 신생아실 CCTV에 남아 있던 아기 학대 정황을 보며 굉장히 분노했다. 경찰에서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날 병원 CCTV에 2시간 분량이 없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추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방송에서 다시 다뤄주길 바란다. <11월 13일 보고서>

○ 1TV 「좋은나라 운동본부2」

- 재산이 많은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비위생적인 식당을 적발하고, 심지어는 성매매 현장,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적발하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이런 종류의 공익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1TV 「천상의 컬렉션」

-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더불어 연예인 호스트들의 생생한 프레젠테이션도 재미있었다. 방영 당시 매주 빠짐없이 시청했는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 <12월 13일 보고서>

○ 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 언론과 경찰청이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좋아서 즐겨 시청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2월 18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1983년 처음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의 맥을 잇는 사람 찾기 프로그램이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헤어진 가족, 평생의 은인, 전우 등을 찾았는데 무척 감동적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방송인만큼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19일 보고서>

○ 2TV 「학교 2017」

- 성장 드라마 '학교'의 일곱 번째 시즌으로, 18세 고등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내어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생활기록부, 수시전형 등 입시 문제를 현실감 넘치게 다뤘기 때문에 본인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기도 했다. 후속으로 '학교 2019'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긴급구조 119」

- 사건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 대원들의 긴박한 구조 상황을 재연해 보여주었던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방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 더불어 인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하는 구급 대원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구급 대원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청춘불패 시즌2」

- 걸 그룹 멤버 8명이 대부도에서 펼치는 리얼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매주 주말마다 농장을 가꾸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겨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시즌3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자신을 꽤 좋은 상사라고 믿고 있는 보스들이 직원과 후배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아성찰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보며 직원이나 후배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리더와 직원 간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모로 공감하며 시청했던 프로그램인데 2부작으로 막을 내려 안타깝다. 유익한 방송이므로 꼭 정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2월 27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인과 100인의 대결로, 최후의 생존자 1인을 가릴 때까지 대결하는 퀴즈쇼 프로그램이다. 1인은 상금이 쌓여도 도전을 멈출 수 없으며, 1인과 100인 중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이 손에 땀을 쥐게 했고, 상식을 쌓을 수 있어 유익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2TV 「덕화티비」

- 낯선 1인 방송 세계에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덕화의 좌충우돌 1인 크리에이터 도전기를 무척 재미있게 시청했다. 구독자 수도 많았고 흥미진진했는데 6부작으로 막을 내려 아쉬움이 남는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위기 상황 대처법과 예방법을 알 수 있어 무척 유익했던 프로그램이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어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여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부부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겨 시청했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시즌 3을 제작해 주면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5월 10일 보고서>

○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

- 김숙, 홍진경, 강예원, 한채영, 홍진영, 공민지, 전소미 7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걸그룹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멤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3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28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실력 있는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편곡해 불러주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디즈니 실사영화 '알라딘'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알라딘' 뿐 아니라 '겨울왕국', '인어공주'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

선에는 주옥같은 명곡이 굉장히 많다. 추후에「불후의 명곡」에서 '디즈니 특집'을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 <6월 18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이미 많은 의학 프로그램이 있지만,「비타민」은 어려운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어 즐겨 시청했었다. 그러나 방송이 종료되어 다시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후속 방송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건강 상식을 다시 제공해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2TV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 영원한 '내 편'일 줄 알았더니, 결혼 후 '남의 편'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황당한 주부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 남편만 그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글로벌 남편들은 어떤지를 다뤄주어 매회 공감하며 시청했다. 무척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므로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16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다.「전설의 고향」은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더위를 잇는데 제격이었다. 마무리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유익한 면도 있었다. 시청자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KBS 특별기획 드라마 생일편지」

- 추석특집으로 제작된 드라마 「생일편지」를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일제강점기를 겪어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인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훌륭한 작품인데 2부작으로 끝나 아쉬움이 크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미니시리즈로 다시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 <9월 20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남녀노소를 불문한 일반인 출연자들이 고민을 밝히면, 개그맨 신동엽 씨와 이영자 씨를 비롯한 많은 진행자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매 회 다양하고 독특한 고민들에 함께 웃고 울었는데, 중영이 되어 너무 서운하다. 하루빨리 시즌2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우리 주변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2TV 생생정보」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제작진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주니, 집에서도 편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음식 소개에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 의류나 가전제품 등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11월 14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달해주었던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지난 달, 36년간 방송되었던 「연예가 중계」가 막을 내렸다. 시청자들에게 연예계 소식을 전해줄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속히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2월 23일 보고서>

○ 2TV 「생존자들」

- 2부작으로 제작된 리얼 재난 체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는 화재사고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았고, 2부에서는 선박 사고 탈출 체험을 통해 해양사고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봤는데 무척 유익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2부작으로 끝나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27일 보고서>

○ 1R 「행복한 시니어」

-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빠짐없이 청취했던 애청자이다. 각종 노인성 질환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 등을 알려주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해당 방송이 종료되어 안타깝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꼭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 해당 방송을 꾸준히 청취해왔다. 각종 질환과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 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유익한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었는데, 속히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9월 18일 보고서>

○ 1R 「싱싱 농수산」

- 농업에 종사하는 청취자이다. 평소 해당 방송을 통해 농수산 뉴스와 첨단 기술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아왔다.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 감미로운 음악과 이웃들의 따뜻한 사연을 듣기 위해 매일 오전 청취한다. 10월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시각장애인들이 라디오를 많이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만큼은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15일 보고서>

###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비켜라 운명아」

- 현재 해당 드라마 속 가장 큰 관심사는 그룹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던 최이우(강태성 분)가 급성 간경변에 걸려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수목극 '왜그래 풍상씨'의 이풍상(유준상 분)도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의 장고래(박성훈 분)는 이미 간이식을 받았는데, 세 드라마를 모두 시청하는 본인은 이런 똑같은 전개가 황당하다. 모든 드라마에서 갈등의 해결책으로 장기 이식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점을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여름아 부탁해」

-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다뤄주어 매일 저녁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주상미(이채영 분)가 자신의 고교 동창생인 왕금희(이영은 분)의 남편 한준호(김사권 분)를 유혹하는 내용이 있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일일연속극에서 불륜 등 자극적인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이날 방송 초반에 변명자(김예령 분)로 인해 화장실의 변기가 막히는 장면이 그려졌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며 시청하던 중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뿐 아니라 주상미(이채영 분)와 한준호(김사권 분)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그려져 보기 안 좋았다. 온 가족이 보는 일일드라마에서 불륜 등 자극적인 소재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한준호(김사권 분)가 조강지처 왕금희(이영은 분)와 이혼 후 주상미(이채영 분)와 결혼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결국 본처를 버리고 내연녀를 선택하는 전개가 보기 안 좋았다. 그리고 왕금희는 주상미의 동생 주상원(윤선우 역)과, 왕금희의 동생 왕금주(나혜미 역)는 한준호의 형 한석호(김산호 분)와 엮이는 설정 또한 억지스럽다.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8월 1일 보고서>
- 왕금희(이영은 분)가 백혈병에 걸려 쓰러지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제까지 입양한 아들 서여름(송민재 분)을 지키기 위해 갖은 고생을 했는데, 겨우 아들과 함께 살게 되니 이번에는 병에 걸린다는 설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 재미를 위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개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 1TV 일일연속극「꽃길만 걸어요」

-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봉선화(이유진 분)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괴롭히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후 봉선화의 회상장면이 이어졌는데,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내용이었다. 최근 학교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언론에서도 이런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구윤경(경숙 분)이 반려견 제니의 원활한 배변활동을 위해 산책에 나서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러나 배변 봉투를 지참하지 않았고, 제니가 배변을 마치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낙엽으로 덮는 모습이 방영돼 불쾌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설물 회수는 견주의 책임이니, 공영방송에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11월 29일 보고서>
- 이날 구윤경(경숙 분)이 보석을 잃어버린 후, 베트남 출신 가사도우미 짠(홍지희 분)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이 그려졌다. 최근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장면이 그려져 굉장히 보기 불편했다. 강자가 약자에게 갑질하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 <12월 12일 보고서>
- 남편을 잃고도 시댁에 살면서 진흙탕 시집살이를 굳세게 견디는 강여원(최윤소 분)을 응원하며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강여원을 향한 상사 황수지(정유민 분)의 갑질이 심해져서 보기 불편하다. 최근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강자가 약자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장면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주기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 2TV 「TV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 한태성(임호 분)이 고달순(홍아름 분)에게 자신이 친부라고 거짓말하여 충격을 받은 달순네 식구들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한수(김진서 분)를 제거하기 위해 계락을 짜는 한태성의 모습이 나왔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악행이 점점 심해져 공감하기 어렵고 보기 불편했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 <1월 31일 보고서>

#### ○ 2TV 주말드라마「하나뿐인 내편」

- 이날 김도란(유이 분)은 강수일(최수종 분)이 자신의 친아빠라는 사실을 시아버지 왕진국(박상원 분)에게

들키고 말았다. 질투심이 극에 달한 장다야(윤진이 분)가 도란의 방을 뒤지고 차에 잠입해가며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인데, 이러한 장다야의 캐릭터가 너무 악랄해서 보기 안 좋았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캐릭터를 악랄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추후에는 극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1월 8일 보고서>

- 장다야(윤진이 분)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강수일(최수종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로 인해 이제껏 모든 시련을 곳곳하게 버텨온 김도란(유이 분)에게 다시금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 같아 속상하다. 회가 거듭될수록 장다야의 캐릭터가 악랄해지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기 안 좋고,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극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2월 12일 보고서>

- 이날 김도란(유이 분)은 아버지 강수일(최수종 분)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남편 왕대륙(이장우 분)과 이혼하게 됐다. 그 중심에 장다야(윤진이 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하는 유전자 검사, 블랙박스 절도, 범죄인 신상 취득 등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동으로 시청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개연성 없는 전개와 출생의 비밀 같은 억지 설정이 극을 지루하게 만든다. 추후에는 극이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2월 18일 보고서>

-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충격 받는 장고래(박성훈 분)에게 간이식을 결정하는 강수일(최수종 분)의 모습이 방영됐다. 매번 흥미로운 전개로 재미있게 시청해왔지만, 내용이 점점 극적으로 치달고 설정이 과해짐에 따라 보기 불편할 때가 많다. 추후에는 극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3월 4일 보고서>

#### ○ 2TV 일일드라마「원손잡이 아내」

- 충격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남자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매회 극에 몰두한 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조애라(이승연 분)가 본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들 박도경(김진우 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가며 자녀에게 모든 걸 쏟은 뒤 집착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런 경향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 흥미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소재를 다뤄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남자와 신혼여행지에서 사라진 남편을 찾아 헤매는 여자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갈수록 전개가 자극적이고 캐릭터들이 악해져서 우려스럽다. 특히 장에스더(하연주 분)가 사고로 박도경(김진우 분)을 잃게 되자, 동승했던 이수호(송원석 분)를 박도경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서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바꿔치기 하는 등 너무 사악하게 그려진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너무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인 설정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25일 보고서>

- 김남준(진태현 분)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조애라(이승연 분)를 잠시 죽은 것처럼 만든 뒤 빼돌리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 장면 외에도 납치, 감금 등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이 난무해서 보기 안 좋다.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5월 3일 보고서>

- 박수호(김진우 분)가 김남준(진태현 분)의 아내가 된 오산하(이수경 분)를 보고 충격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초반에도 박수호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사람과 얼굴이 바뀌는 설정에 다소 황당했었다. 그런데 오

산하까지 기억을 잃고 오젼마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니 너무 당황스럽다.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 벌」

- 국일가 첫째 국중섭(권혁 분)의 부당거래와 폭력사건을 고발한 조들호(박신양 분)의 뜨거운 고군분투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극이 진행될수록 등장인물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내용도 너무 선정적으로 흘러가서 보기 안 좋다. 15세 이상 시청등급인데, 너무 자극적인 설정과 장면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루빨리 통과하고 인간미 넘치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인 강미선(유선 분)의 고군분투기를 보며 함께 눈물 흘린 시청자이다. 워킹맘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 너무 공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 하미옥(박정수 분)이 한창 일하고 있는 강미선에게 자신과 친구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시키는 것과, 친구들이 그런 강미선을 파출부로 오해하는 전개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고부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끝나지 않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고단한 직장 일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전형적인 워킹맘 강미선(유선 분) 역할에 공감하며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강미선이 온갖 핑계로 집 밖을 나돌며 육아는 하지 않는 남편 정진수(이원재 분)를 때리는 장면이 그려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은 옳지 않은 행위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네 모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너무 거센 장모(김해숙 분), 마마보이 사위(이원재 분) 등 캐릭터들이 현실성이 떨어져 공감하기 어렵다. 또한 신입사원 한태주(홍종현 분)가 부장인 강미리(김소연 분)에게 반말을 하는가 하면 취중고백을 하는 등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금 더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지난 방송에서 정진수(이원재 분)가 수집한 장난감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모텔에 숨겼다. 이후 아내 강미선(유선 분)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날 방송에서 강미선은 모텔에서 그 장난감들을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난감을 사기 위해 모텔로 찾아온 구매자들 중 초등학교도 포함돼 있었다. 요즘 흉악 범죄가 부쩍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보호자도 없이 모텔로 장난감을 사러 오는 장면은 부적절해 보인다. <7월 2일 보고서>
- 정대철(주현 분)이 부인 하미옥(박정숙 분)에게 택시 운전하는 것을 들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미옥이 택시 운전을 안 좋게 얘기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시청하는데 불편했다. 앞으로는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23일 보고서>
- 강미선(유선 분)·정진수(이원재 분) 부부의 딸 정다빈(주예림 분)이 육아도우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한편, 최근 아이돌보미 영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까지 아이돌보미를 부적절하게 묘사한다면,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사기꾼인 양정국(최시원 분)이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이 과연 필요한 건가', '우리가 지하철을 바라는 이유는 집값 때문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우려가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은 수원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특정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민감한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저스티스」**

- 여배우 연쇄살종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배우 손현주와 최진혁 등 화려한 출연진에 이끌려 첫 회부터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송우용(손현주 분)이 양철기(허동원 분)를 살해하는 장면, 피투성이가 된 채 화장실에서 사망한 여자의 모습 등이 그려져 너무 끔찍했다. 15세 이상 관람가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장면은 자제해주길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김청아(설인아 분)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학생 구준겸(진호은 분)과 동반자살을 계획했고, 구준겸만 사망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번개탄과 청테이프, 수면제 등 자살 방법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해당 방송을 시청한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따라할까 우려된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9월 30일 보고서>

## | 4. 출연자·진행자 |

○ **1TV 「특집 KBS 뉴스 9」**

-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해주는 'KBS 뉴스 9'를 매일 저녁 시청해왔다. 새해를 맞아 진행자가 엄경철 기자와 이각경 아나운서로 변경되었는데, 다양한 소식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새롭게 개편되는 뉴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 좋은 보도 기대하겠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여전한 안전 불감증! 나는 안전할까?'**

- 이날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안전사고들을 살펴보았다. 그중 아파트 복도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사 하는 경우가 소개되었다. 패널로 출연한 이성춘 은평소방서 구조대장이 '여성들이 아무래도 키가 작으니 발판을 놓고 그 위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판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남성들이 도와주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그런데 고층에서 이불을 털는 것 자체가 무척 위험한 행위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복도나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월 18일 보고서>

○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여운형'**

- 이날 도올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은 '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몽양 여운형 선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을 통해 3.1 운동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어 유익했다. 무엇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시청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지식을 전달해 주어 이해가 쉬웠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거리의 만찬」‘정치의 조건 2부 - 당신의 300명’

- 이날은 다섯 명의 국회의원과 개그맨 정성호가 출연해 ‘유치원3법’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인지,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본인들을 홍보하러 나온 느낌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방송 출연보다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북미 합의 불발, 북핵 돌파구는?’

-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원인과 배경을 조명해보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계속해서 북한 입장에서 발언을 이어가 듣기 불편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북한 입장을 헤아리기 전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의 국가이지만, 현재는 엄연히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

- 중요한 이슈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그날의 이슈들을 짚어주는 점은 유익하다. 그러나 진행자 김제동 씨가 편파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또한 중요한 사안을 다룸에도 웃거나 가벼운 자세로 방송에 임해 보기 안 좋다. 하루빨리 김제동 씨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서대문형무소 ‘8번 방의 기적’

- 1920년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의 ‘여옥사 8번 방’에서 시작된 옥중 만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처했던 고통스럽고 열악한 형무소의 일상을 알게 되었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통한 역사를 다루면서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미소 띤 얼굴과 가벼운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중요한 역사를 다루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방송에 임해 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고향밥상’

- 이날 조문식 리포터가 고향의 밥상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정선군을 찾았다. 이어 강원도에서 소중한 식량이 되었던 연 감자와 땅속의 보물이라 불리는 더덕을 소개해 주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친근함,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활약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이날은 문 대통령 집권 2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국정철학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라서 기대를 가지고 시청을 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민생 현안과 국정 구상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답변을 자르고 독재자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보기에 불편했다. 앞으로는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평일 오후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시사 이슈를 정치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이 분석해주어, 뉴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유익하다. 더욱이 김원장 진행자가 중립적인 태도로 공정하게 진행해 주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국회 정상화 전망 민주당·한국당 기싸움?'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출연해 국회 파행 돌파구가 언제쯤 열릴지 토론했다. 전 대변인은 여당이 한국당을 향해 무조건 복귀를 요구하는 점에 유감을 표했고, 이 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는 모습에 답답했고, 민생보단 본인들의 이익만을 따지는 모습에 실망스러웠다. 정치인들은 민생을 위해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헝가리 유람선 인양'

- 지난 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날 KBS에서 허블레아니호 인양 현장을 중계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선체의 모습이 드러나자 패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인양이 빨리 이뤄져 다행이라는 뜻의 웃음이라는 건 알겠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진중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6월 12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매주 일요일마다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인「전국노래자랑」을 시청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재능 넘치는 일반인들의 무대를 볼 수 있어 신선하고 재미있다. 더불어 매회 쟁쟁한 초대가수들도 무대에 오른다.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일반인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초대가수는 한 회에 한 명 정도만 섭외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다가오는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여덟 명의 국회의원들이 출연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퀴즈를 푸는 모습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더 보고 싶다.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들은 보다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 <7월 17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인 「노래가 좋아」를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은 장경동 목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는 과거 '불교를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 등 불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주민 대학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타 종교를 비하하고,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은 사람은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8월 12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

- 외국인들이 낯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이 여러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다만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일본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어 보기 불편하다. 한일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라도 출연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격화되는 조국 인사청문회 논쟁'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래서 이날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 조국 정국의 핵심쟁점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그의 가족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감싸지만 말고, 각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주시기 바란다. <9월 2일 보고서>

○ 1TV 「2019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 추석을 맞아 지난 30여 년 동안 창작국악동요대회를 통해서 발굴한 주옥같은 국악동요를 소개해주었다. 특히 남녀 진행자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 보기 좋았다. 다만 여자 진행자가 머리를 풀고 있어 조금 아쉬웠다. 우리 음악의 멋과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한복에 어울리는 단아한 올림머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9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별의별 중계 [창원총국]」

- 이날은 '통영 연화도 섬마을의 하루' 2부가 방송됐다. 통영 연화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아름다운 풍경과 각종 랜드마크 등을 보여주어 재미있었다. 특히 진행자의 맛깔스러운 진행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늘 따뜻하고 정겨운 진행으로 재미를 선사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당 방송의 진행자로 함께해주길 바란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어르신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여러 지혜를 얻을 수 있어 무척이나 유익하다. 그런데 늘 국악인 남상일 씨와 윤지영 아나운서로 패널이 정해져 있어 지루한 느낌이 든다. 매회 다른 패널을 섭외해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으로 신선한 방송을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11월 11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출입처 없애면 KBS 뉴스가 달라질까'

- 최근 KBS 보도가 많은 구설에 올랐다. 그래서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이 출연해서, 필수 영역을 제외하고 출입처를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출입처 폐지 방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진행자 최옥 씨가 엄경철 보도국장의 발언에 너무 가볍게 응수하여 보기 불편했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조금 더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11월 20일 보고서>

○ 1TV 「정치합시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 이사장은 여러 차례 실언 논란이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또한 KBS 기자와 검찰이 내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을 KBS에서 섭외하는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11월 21일 보고서>

○ 1TV 「특집 도전, 골든벨 도제학교 골든벨」'패자부활 축하 공연'

- 도제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 100명이 골든벨에 도전했다. 취업이 힘든 요즘, 공부와 일 둘 다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다. 그런데 축하 공연을 위해 출연한 걸 그룹 세러데이의 의상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민망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는 건전한 의상을 착용하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2월 16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친정식구들과 연락이 닿은 김승현의 어머니'

- 이날은 김승현의 어머니가 어릴 적 헤어진 친정식구들과 연락이 닿아서,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 댁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학다식한 작은아버지와 만남에 김승현의 아버지가 당황하고 풀 죽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다. 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승현의 가족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늘 방송 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섯 명의 아나운서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 서로의 호흡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2TV 「설 기획 KBS 아침 뉴스타임」

- 국내외 주요 사건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주어 아침마다 즐겁게 시청 중이다. 이날은 특별히 오언종·백승주 두 진행자가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진행했는데 무척이나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밝은 기운을 전해주는 진행자로 오랜 기간 함께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2TV 「설 특집 옥탑방의 문제아들」

- 이날 방송인 서장훈이 옥탑방을 방문해서 멤버들과 함께 문제를 풀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이혼소송을 할 때 이것 또한 판사의 판결을 통해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송은이가 먼저 정답을 외치고 "반려견의 입양여부"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서장훈이 끼어들며 "반려동물 입양여부"라며 억지를 부렸고, 정답으로 인정됐다. 송은이가 억울함을 피력했으나, 서장훈이 계속 말을 가로막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해피 선데이'를 재미있게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그런데 '1박 2일'의 멤버인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멤버를 프로그램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주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해피투게더4」

- 지난 7일은 '하나뿐인 내편'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의 출연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그런데 아직 드라마가 종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웃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극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졌다. 예전에도 종영되지 않은 드라마의 출연진이 종종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스포일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급적이면 종영되지 않은 드라마의 출연진을 섭외하는 건 자제해 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음식'

- 평소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데, 마침 이날 주제가 다이어트라서 관심을 갖고 시청했다. 한의학 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출연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 등을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됐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음식조리법을 가르쳐준 요리연구가가 다소 살집이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적재적소에 맞는 출연자를 섭외한다면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 같다. <4월 4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밤사이 일어난 사건사고는 물론, 생활정보와 문화정보까지 알 수 있어 방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남자 아나운서가 밝고 활기차게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다만 말을 많이 해서 내레이션과 겹쳐 종종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고, 때때로 가벼워 보이는 면도 있다. 시청자가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지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4월 25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벚꽃 엔딩 (anding)'

- 가수 장범준이 여수에서 조하 남매와 함께하는 첫 버스킹 공연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날뿐 아니라 장범준 씨는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보다는 본인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본인 혹은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지닌 출연자보다는, 아내 없는 48시간동안 눈물겨운 육아 도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명사 토크쇼 <멋진 하루>'

- 중식의 대가 여경례 셰프가 출연해서 관심을 갖고 시청했다. 여경례 셰프가 본인의 성공 비법을 알려주고,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도 있어 유익했다. 다만 진행자들이 방송을 진행한대기보다는, 마치 지인과 담소를 나누듯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나가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보다 시청자를 위한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국내외 주요 사건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주어 아침마다 즐겁게 시청 중이다. 특히 오연종 아나운서가 늘 환한 얼굴로 명쾌하고 활기차게 진행해주어 아침마다 활력이 된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밝은 기운을 전해주는 진행자로 오랜 기간 함께해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현주엽 감독이 신규 선수를 영입하고,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에는 유머 있지만, 막상 훈련에 돌입하니 냉철한 눈빛으로 선수들을 단련시키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더불어 억지웃음을 유발하지도 않고,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고 소탈한 일상을 보여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해당 방송에서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길 바란다. <6월 25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음식, 건강, 살림노하우 등 제목처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도경완 아나운서가 하차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늘 밝고 활기찬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는데 더 이상 해당 방송에서 볼 수 없어 서운하고, 앞으로 다른 방송에서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2TV 「유벤투스FC 초청축구 친선경기」'팀K리그:유벤투스FC-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KBS에서 중계를 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경기 직후 이뤄진 잔루이지 부폰 선수와의 인터뷰에서, 아나운

서가 현장에 통역전문가가 있음에도 영어로 진행해 당황스러웠다.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으라차차 만수로」

- 배우 김수호가 영국축구구단을 경영하는 내용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최근 엑소 카이를 대신할 글로벌 이사로 뉴이스트 백호가 합류했다. 그런데 백호는 지난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었다. 그 이후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 출연자들은 가급적 섭외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란다. <8월 2일 보고서>

○ 2TV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 대한민국 아이 돌봄의 현주소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가끔씩 딱히 도움이 필요해보이지 않는 가정이 나올 때가 있다. 가령 이날 방배동 워킹맘의 경우, 형편도 여유롭게 보였고 도우미 선생님도 있어서 아이의 등·하원이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등·하원 도우미들의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8월 27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X1 그룹이 뮤직뱅크에 출연한다는 기사 내용을 접했다. 해당 그룹은 타 방송사에서 시청자의 투표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하지만 투표 조작으로 인해 그룹 결성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영 방송 대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출연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2TV 「추석 기획 슈퍼맨이 돌아왔다」 '작아진 아빠의 손'

- 윌리엄, 벤들리 형제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 윌리엄이 아빠 샘 해밍턴의 손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 물건을 감춰고, 이후 샘이 작은 의수를 착용하여 윌리엄을 놀라게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혹은 사고로 의수를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장난이었다. 다양한 시청자들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9월 17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 「조선로코 녹두전」

- 미스터리한 과부촌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전녹두(장동윤 분)와 기생이 되기 싫은 동동주(김소현 분)의 유쾌하고 발칙한 로맨틱 코미디이다. 전녹두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이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연기로 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끄는 것 같다. 마지막까지 좋은 연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2TV 「무한리필 셸러드」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 수요일 코너 '이인철의 법대로 해라'에서 회식 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을 다뤘다. 그런데 '다음 중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이라는 짧은 문제를 풀던 중, 두 여성 진행자들이 너무 웃고 가벼운 태도를 취해 보기 불편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는 힘겨운 주제이므로, 보다 진중한 태도를 취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2월 5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 각종 질환과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국내외 의학계 소식을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늘 감사하다. 무엇보다 진행을 맡은 신성원 아나운서가 꿈

꼼하고 정확한 설명을 곁들여 주어 무척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좋은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주길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이날 '열린토론'의 주제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었다. 그런데 패널로 출연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양된 상태로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여 다른 패널과 오디오가 겹치는 등 청취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 패널들은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토론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토론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 매주 주말이면 생생한 정보들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진행을 맡은 서기철 아나운서가 시청자들이 궁금할만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관심사에 대해 차분하게 전달해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집중할 수 있다. 늘 좋은 진행을 해주어 감사하다. <2월 12일 보고서>

○ **1R 「뉴스 중계탑」**

- 그날의 주요 사건 사고는 물론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곁들여 주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재익 진행자가 하루의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는 점이 무척 유익하게 느껴진다. 늘 청취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3월 13일 보고서>

○ **1R 「생방송 일요일 아침입니다」**

-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 및 날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어 방송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방송이 주말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화제와 이야기로 구성되어있어 재미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이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패널의 설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진행자는 청취자들이 전문가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의 말은 조금 줄여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1R 「어업기상통보」**

- 본인은 밤새 운전을 하는 화물차 운전원이다. 그래서 심야시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주로 청취한다. 그런데 어업에 필요한 기상 상태를 전해주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너무 힘없고 졸린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여 덩달아 기운이 빠진다. 앞으로는 조금 더 힘차고 명확한 발음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R 「58분 날씨」**

- 58분에 생활과 기상정보를 결합한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어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 특히 '58분 날씨'를 진행하는 기상캐스터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차분하게 진행해주어 일기예보가 귀에 잘 들어온다. 매 시간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진행 부탁한다. <5월 3일 보고서>

○ **1R 「김경래의 최강시사」,「최강인터뷰3」**

- 이번 주에 '개그콘서트'가 1000회를 맞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은 '개그콘서트'의 만형인 개그맨 김대희 씨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런데 김대희 씨가 진행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한참동안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여 듣기 불편했다. 진행자도 당황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인터뷰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앞으로 출연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방송에 출연한 이상 청취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R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지난 16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정용실의 뉴스브런치」를 잘 듣고 있다. 이날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은퇴 이후 대책을 다뤘는데 유익했다. 무엇보다 정용실 아나운서의 진행솜씨가 굉장히 훌륭하고 발음이 명확해서 프로그램에 집중이 잘 된다.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9월 26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지금, 이사람” ‘정신과전문의 이시형 박사’

- 이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 과학자인 이시형 박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조언해주었는데 도움도 되고 위안도 됐다. 다양한 저서들도 함께 소개되었는데, 모두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감명 받았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 감사하다. <9월 27일 보고서>

○ 1R 「김용민 라이브」

- 퇴근길에 청취한다. 어렵게 느껴지는 시사와 교양 분야를 지루하지 않게 다뤄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다만 진행자 김용민 씨가 너무 편파적인 태도로 방송을 진행하고, 마치 친구들과 사담을 나누듯이 발언을 해서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추후 개편 시 조금 더 공정한 진행자를 섭외해주었으면 좋겠다. <10월 24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대통령의 소통 점수는?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 프로그램이 열렸다. 그래서 이날 전 원책 변호사와 이숙이 기자가 국민과의 대화가 공감의 폭을 넓혔을지, 실망을 높였을지 평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주장해서 듣기 불편했다. 박진감 넘치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먼저 갖춰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2R 「조충현의 럭키세븐」

- 생활정보와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이 방송을 청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활기차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명랑한 것도 좋지만,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청취자들을 위해 조금은 부드러운 진행을 부탁한다. <1월 15일 보고서>

○ 2R 「김원준의 라디오스타」

- 매일 오후 ‘김원준의 라디오스타’를 들으며 퇴근한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담긴 사연과 음악을 듣다보면 퇴근길이 지루하지 않아 좋다. 그런데 진행자 김원준 씨의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라서 축 쳐지는 기분이다.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힘겨운 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 조금 더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다. <2월 22일 보고서>

○ 2R 「오늘 같은 오후엔 이세준입니다」

-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기분 좋은 음악들을 많이 선곡해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다. 다만 진행을 맡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안 그래도 점심식사 후 졸린 시간

인데 더욱 기운 빠지는 느낌이다. 나쁜 오후를 보내는 청취자들을 위해 조금 더 힘차고 씩씩하게 진행 해주기 바란다. <6월 27일 보고서>

○ **2R 「김선근의 럭키세븐」**

- 매일 오전, 하루를 시작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김선근 아나운서가 따뜻한 음성으로 유익한 생활정보와 좋은 음악을 많이 소개해주어 만족스럽다. 다만 재미를 위해서인지 다소 가벼운 태도로 진행할 때가 있다. 이른 시간이고, 본인과 같은 중장년층도 많이 청취하고 있으니 조금 진중한 태도로 진행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10월 25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매일 아침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 김미숙 씨의 낮고 힘없는 음성은 오전 시간대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다. 더욱이 음악에 대한 해설도 부족하여 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추후에는 청취자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조금 더 활기차게 진행해 주고, 곡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주기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세계각지의 연주회 실황을 입수해서 최신 연주를 들려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송이다. 음악회를 생생한 현장음 그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청취할 정도로 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 특히 음악칼럼니스트 최은규 씨의 진행이 수준급이라 풍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좋다. 앞으로도 깊고 풍부한 해설을 부탁한다. <6월 20일 보고서>

○ **1FM 「새아침의 클래식」**

- 서양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들려주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엄지인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클래식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편안하고 깊이 있는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앞으로도 부드러운 진행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개그맨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쇼'를 오랫동안 청취해온 청취자이다. 요일별로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방송이 진행되는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다. 그런데 박명수 씨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타 방송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를 해당 방송에서 또 하는 등 겹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박명수 씨는 '라디오쇼'의 오랜 애청자들을 위해 조금 더 독자적이고 신선한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노래와 함께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 말미에 이현우 씨가 '불타는 금요일 보내라'는 끝인사를 했다. 지난 4일 강원도 인제, 고성, 속초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다. 금요일마다 하는 인사말이지만, 국가재난 사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해 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2FM 「악동뮤지션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

-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길에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다. 가수 이수현 씨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집중이 잘 된다. 앞으로도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진

행자가 되길 바란다. <12월 10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을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이다. 흘러간 옛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을 맡은 원석현 아나운서가 차분하면서도 친근감 있게 진행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8월 9일 보고서>

○ **한민족1 「문화 공감」**

- 문학, 음악, 영화, 공연, 미술 등 문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방면에서 상식을 쌓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김재원 아나운서의 편안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진행이 인상적이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 5. 공정성 |

○ **1TV 「신년기획 저널리즘 토크쇼 J」**

- 매주 주제도 흥미롭고,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를 독하게 파헤치려는 시도가 보기 좋아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본인이 느낀 바로는 모든 출연자가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 같은 의견을 지닌 패널들에게서 유익한 토론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반된 입장의 패널을 섭외해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손혜원 의원에게 말한다'**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날 손혜원 의원이 'KBS 뉴스 9'에 출연해서 10분 정도 자신의 의혹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명을 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뉴스에 출연시킨 뒤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심층취재 후 보도해주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손혜원 보도 '무엇을 놓쳤나''**

- 이날은 손혜원 의원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SBS 보도를 통해 시작된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논란이, 일부 언론들로 인해 부풀리기에 매몰됐다는 내용이었다. 손혜원 의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인터뷰를 축소·왜곡했다며 일부 언론의 취재 방식만 문제 삼는 것은 편파적으로 여겨져 납득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

-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어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유익하지만, 진행자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현 정권과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비난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여겨질 때도 많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진행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무엇이 ‘외교 무능’인가?’

- 이날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했던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세계일보와, 이 사건을 외교 결례라고 표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판했다. 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이 실수를 한 건 사실이므로, 공정한 시선에서 비판했더라면 더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4월 2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평일 오후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날그날의 이슈를 정치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이 분석해 주어, 뉴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패널이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발언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점이 보기 안 좋다. 추후에는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발언권과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고경심 인의협 이사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낙태율 더 높아”’

-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그래서 이날 9시 뉴스에서 낙태죄 찬반 쟁점을 짚어주었다. 이어 스튜디오에 낙태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그런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패널만 섭외한 것은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양측 입장을 고루 다루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획 일요진단」

- 이날 ‘일요진단’에는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패널로 출연해서 임시정부 100년의 가치와 한국의 미래 100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대화 중 3.1운동 정신과 촛불혁명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여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촛불 시위가 있었다면 태극기 집회도 있었다. 어느 한 측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지 않길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5」‘경찰, ‘통도사 차량 돌진’ 본격 수사..차체 분석 의뢰’

- 경남 양산의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가 13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운전자가 70대 고령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젊은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도 많은데, 유독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를 보도하는 점은 공정치 못하다. 무조건 고령 운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검사 제도를 갖추는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광주 투입 헬기, 탄약 5백발 사용”..5·18 군인의 증언’

-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당시 탄약 관리 군인의 증언이 보도됐다. 광주로 출격한 헬기가 탄약 5백발 정도를 발사하고 돌아왔다는 증언에 따라, 무장은 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던 당시 헬기 조종사들 진술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그 조종사들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인을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거리의 만찬」‘광수를 찾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특히 북한군 개입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심도 있게 다뤘다. 그런데 북한군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를 주장하는 지원 씨 측 패널도 출연했더라면 더 공정한 토론이 이뤄졌을 것 같다. 또한 5·18 유공자 선정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다뤄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 <5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서울 한복판서 외쳐온 성소수자 인권..20년 맞은 퀴어 축제'

- 이날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9시 뉴스에서 해당 축제를 취재했는데, 성소수자들의 입장만 다룬 점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아직까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주장이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더 많다.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입장만큼 반대하는 입장도 다뤄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6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화상 입어도 병가 못 내"...학교 비정규직의 위험한 노동'

-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노조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기본급 6.2% 인상을 요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엄연히 다른데, 차별을 해소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그러나 보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7월 4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현재 뜨거운 경제 이슈와 정치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어주어 매주 시청한다. 이날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출연해 '군 기강해이', '일본의 수출규제 파장 확산' 등을 두고 토론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자유한국당 측 말을 자르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다. 추후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광화문에 올려진 촛불...'NO 아베''

-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집회와 현 정부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반일 집회는 길게 보도한 반면 태극기 집회는 짧게 보도했다. 또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 타 언론에서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를 경찰 추산 4만 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의아했다.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8월 20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조국캐슬' 논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녀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출연해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현재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센데, 방송이 전반적으로 조 후보자의 입장을 변호하는 분위기가 아쉬웠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속 시원하게 다뤄주면 좋겠다. <8월 26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법무부장관 후보 조국, 적격? 부적격?'

- 이날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적격' vs '부적격'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사모펀드 투자에서 시작해 딸의 장학금 및 논문 특혜까지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해 '신상털기'와 '가짜뉴스'로 대응해 아쉬웠다. <8월 26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박근혜·최순실·이재용 그리고 '우리'의 미래'

- 주진우 기자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불법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진보 성향 패널만으로 구성되어, 반대편 입장을 들어볼 수 없어 아쉬웠다. 삼성 측 인사도 출연해서 다

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9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질문에는 모른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답답했다. 긴 시간을 할애해 기자간담회를 편성한 의미가 없어 보여 아쉬웠다. <9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국정농단 이후 "최대규모"...'검찰개혁' 민심 확인'

- 28일에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집회 보도를 시청했다. 참여 인원 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주최 측 추산 인원을 언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조국·문재인 퇴진" 보수단체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집결'

-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복궁 앞에서부터 시청광장을 지나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너무 짧게 보도 되어 의아했다. 또한 순수한 시민들을 보수 단체로 몰아가는 것도 보기 불편했다.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10월 7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공수처' 설치 공방 해법 없나?"

-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인사들이 출연해 공수처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민주당 인사보다 한국당 인사에게 발언 시간을 더 많이 분배했고, 격한 말싸움이 오갈 때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발언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해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매일 오전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그중에서도 수요일에 방송되는 '도전! 꿈의 무대' 코너를 가장 좋아한다. 이날 최우진 씨가 새로운 도전자들을 이기고 4승을 달성했다. 그런데 노래에 앞서 사연을 소개할 때 진행자 및 패널들이 최우진 씨에게 유독 말을 많이 걸어주는 등 편애하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도전자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길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오지 않는 청년의 시간'

- 조국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청년층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청년층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일까를 짚어보았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집회를 보여주었는데,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이 마치 20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다뤄져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청년층의 견해도 방송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감동과 웃음이 있는 가족 노래대결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도 감동적인 노래와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러나 노래 실력이 가장 출중했던 '부자의 진검 승부' 팀을 꺾고, '국경 없는 우

정'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점이 다소 의아했다. 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 <12월 9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정치 행보를 집중분석했다. 해당 방송은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인은 자발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점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전 목사나 전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도 반영되었더라면 더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다. <12월 23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 '아침 뉴스룸' 코너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짚어보았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단독으로 출연해서 정부와 여당 입장만 주장하는 점이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서초동 집회는 장시간을 할애해서 비중 있게 다룬 반면, 광화문 집회는 축소 보도한 점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10월 7일 보고서>

○ 2TV 「2019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3차전」

- 이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과 키움의 경기가 열렸다. KBS 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했는데, 장성호·봉중근 해설가들이 두산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해설을 이어가서 키움 팬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견해는 드러내지 말고,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설해주기 바란다. <10월 24일 보고서>

○ 2TV 「2019 KBS 가요대축제」

- 올 한 해를 빛낸 K-POP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요대축제를 큰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그룹 '에이핑크'의 무대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방송 사고가 있었다. 이후 KBS 측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그룹의 팬들은 무척 서운했다. 내년에는 더욱 안전하고 공평한 방송을 제작해주길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 1R 「김용민 라이브」

- 시사와 교양, 문화가 접목된 프로그램이라 매일 저녁 잘 듣고 있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진행자가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비판할 때가 많아 편파적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또한 때때로 보수진영을 비교는 발언을 하는 것도 듣기 불편하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을 청취자들을 위해 공정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R 「오태훈의 시사본부」

- 다양한 시선과 전문성을 가진 각계각층의 재담가들이 딱딱한 시사를 유쾌하게 풀어주어 매일 점심식사 후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너무 진보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청취자들은 제각각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 조금 더 공정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평일 밤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청취자이다. 시사와 교양, 문화가 접목된 프로

그램이라서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가 정치색이 짙고, 편파적인 태도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청취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추후에는 공정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R 「김경래의 최강시사」

- 매일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출근한다. 이슈의 핵심을 짚어주고,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주는 점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진행자가 늘 야당을 비난하고, 여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점은 시정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이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진행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당의 인사가 발언할 때는 대화 도중 끼어들어 패널의 말을 가로막거나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여 듣기 안 좋을 때가 많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 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6. 사실성

○ 1TV 「전국노래자랑」

- 매주 일요일마다 각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민들의 노래와 장기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트로트 가수 장태희 씨가 '고향오빠'라는 노래를 부르던 중, '멍멍개가 짓고 있었지'라는 부분에서 '멍멍개가 짓고 있었지'라고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국내외 주요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날 스포츠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토요일을 일요일로 잘못 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종합 뉴스인 만큼 보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추후에는 작은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나의 장례식 생각해본 적 있다, 없다'

- 이날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패널들이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다, 없다'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어 나의 장례 계획서를 세우던 중 조문객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인지, 간단한 다과를 대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자막에는 '하객 음식대접'이라고 표기 됐다. 축하하는 손님이라는 뜻을 지닌 '하객'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는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시시콜콜 소식통'

- 이날 '시시콜콜 소식통' 코너에서는, 65년 만에 최초로 개방되는 산책로가 포함된 고성 DMZ 평화의 길 행사를 취재했다. 철책 넘어 바라만 보던 길을 직접 걸어볼 수 있게 되었다니 신기하고 감개무량했다. 그런데 안내해설사가 금강산 채하봉을 설명하는데 자막에 '채화봉'이라고 적혀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실

수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주기 바란다. <5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오전까지 발생한 뉴스를 종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열심히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석가탄신일'이라는 자막이 표기된 것을 보았다. 그간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의 참 의미를 알리고자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7년 정부가 명칭 변경을 받아들였다. 추후에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한미 정상 DMZ 방문'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동행했다. 그런데 출연자 중 한 명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김병주 한미 연합 부사령관으로 소개해서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전달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일본 수출 규제를 한국정부 탓으로 모는 언론의 속내'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는 어떤지 짚어보았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도한 조선일보 사례를 놓고 대화하던 중, 패널 최육이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던 사람으로 아침이 몸에 밴 저도 그 문자를 보면 낯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막에는 '몸에 밴'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맞춤법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는 국가"..."천역 받으면 줄 것"

-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관련 보도를 보았다. 현재 개인 소유인데, 대법원이 상주본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앵커 배경 자막에 '해례본'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매일 아침「KBS 뉴스광장」을 시청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기상캐스터가 전해주는 일기예보를 많이 참고한다. 그런데 이날 '자외선지수도 높고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쾌지수가 치솟겠다.'라는 보도가 나가던 중, 자막에 '불쾌지수'라고 잘못 표기 됐다. 추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30일 보고서>

○ 1TV 「기상특보」

-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의 우리나라 진입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재 휴가철이어서 관심을 갖고 일기예보 및 기상특보를 챙겨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 기상특보를 전하는 하단자막에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9호 태풍 프란시스코'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9호 태풍은 '레끼마(LEKIMA)'이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사사건건 플러스②] 교주 행세 남성..20대 여교사 폭행·살인 '유죄'

-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살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 본인이 교주 행세를 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1심 결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방송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전혀 관계없는

종교단체와 창시자 이름을 언급해서 방송을 보는데 불편했다. 앞으로 보도할 때는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공동 번영 어떻게?'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막이 올랐다. 그래서 아세안 정상들이 한곳에 모이는 다자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다뤘다. 그런데 아세안에 해당하는 동남아의 열 개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화면에 'THAILAND 타이완'이라고 잘못 표기됐다. 타이완은 아세안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THAILAND 태국'이라고 제대로 표기해주시기 바란다. <11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 이날 오전 10시에 대구 달서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열렸다. 그런데 직계가족들의 헌화 및 분향 순서에서, 하단 자막에 '헌화 및 분향'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보기 안 좋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막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 이날 박선자(김해숙 분)가 시동생이자 강미리(김소연 분) 아빠의 제사상을 차리는 장면이 방영됐다. 그런데 지방을 쓸 때 죽은 아우를 뜻하는 '亡弟'라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亡第'라는 한자를 사용했다.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방송이므로 사소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긴급] 끊임없는 마약 논란 YG 양현석 전격 사퇴'

-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 마약 논란 파문을 다뤘다. 한서희에게 양현석의 진술번복 강요가 있던 날, 워너 멤버 이승훈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때 방송에서 이승훈을 YG 간부라 지칭했는데, 이는 팬들 사이에서의 별명일 뿐 실제 직책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

- 이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답은 다름 아닌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여서 무척 놀라웠다. 그런데 배경 화면에 사용된 그림이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어서 당황스러웠다. 방송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6월 27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웃음 만발' 스타들의 별별 논란★'

- '스타들의 별별 논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배우 이원근의 귀 측정법을 다뤘다. 네티즌들이 '7.54cm'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측정한 결과 '7.53cm'였다. 그러자 '이걸 맞추다니 소름 끼쳐'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맞히다니'가 맞는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맞춤법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2TV 「글로벌24」'글로벌 플러스'

-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는 '글로벌 플러스' 코너에서 최근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유제품 소식을 전했다. 중국에서 유제품이 들어가는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세계 우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

용이었다. 그런데 자막에 우윳값이 아닌 우유값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학생들도 시청할 수 있으니 올바른 표기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1R 「오태훈의 시사본부」**

- 박찬형 기자가 이날 아침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및 침몰 사고를 전해주었다. 그런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해양경찰소 구조본부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던 중,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잘못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1월 20일 보고서>

○ **기타 「ID 영상」**

- 「KBS 뉴스 9」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이나 명소를 짙막한 영상으로 보여준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 이날은 경상북도 울진군을 소개했는데, 자막에는 경상남도 울진군으로 표기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 7. 시청자권익 |

○ **1TV 「KBS 뉴스 5」'서울 도심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한 일당 검거...“12만 명 투약 분량”**

-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물품을 보여주었는데, 하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하이메이드(HIMADE) 상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본인은 하이마트의 직원인데, 혹여 자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올까 우려스러웠다. 앞으로는 특정 상표 모자이크 처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 8. 프로그램 호평 |

○ **1TV 「다큐 공감」'인형 아저씨의 사랑'**

- 물자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애착인형의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을 직접 만들어 국내외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인형 아저씨가 소개되었다. 그가 인형 아저씨가 된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가슴 따듯해지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월 2일 보고서>

○ **1TV 「UHD 신년기획 내 삶의 파도 다도해」**

- 다도해 섬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담고, 그들의 생활 모습이 녹아있는 유산들을 만나볼 수 있는 방송이었다. 40년째 끝났시를 즐기는 노년의 모습과 젊은 사람들이 모여 전복 양식을 하는 내용이 인상 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고 독특한 비석이 많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영상미가 좋았다. TV를 통해 안방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 <1월 2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다큐 공감」'화가의 정원'**

- 박태후 화백이 지난 40년 동안 가꿔온 작은 숲이자, 한국식 토종 정원 '죽설헌'을 보여주었다. 정원이라

고 하면 흔히 화려한 가든이나 별장을 떠올리기 쉬운데, 서양식 정원과 차별화된 한국식 토종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영상미에 감동받고, 박태후 화백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월 8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저널리즘 토크쇼 J」'깨어난 시민 J'

- 이날 '저널리즘 토크쇼 J'는 공개방송 특집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방송을 돌아보고, 2019년에는 방송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그간 많은 시청자들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실망한 적이 많은데, '저널리즘 토크쇼 J'가 고정된 틀을 깨고 언론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다. <1월 8일 보고서>

○ 1TV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

-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특집으로 방송된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10대·20대가 모여서 노래와 끼와 재능을 보여주었다. 패기 있고 거침없는 젊은 세대들의 무대가 너무 흥겨워서 다시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이날 재방송을 편성해 주어 좋았다. 앞으로도 시청자 참여 음악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설 특선 다큐멘터리 다이너스티, 야생의 지배자들」

-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야생 동물들의 치열한 싸움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지난해 영국 BBC One 채널에서 방송되었는데,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하여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이날은 호랑이 편이 방송되었고, 역시 명성대로 동물들의 권력 투쟁, 생존, 반란, 지배와 함께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좋은 방송을 소개해 주어 감사하다. <2월 8일 보고서>

○ 1TV 「국제공동제작 아시안피치(Asian Pitch)」'축구 소녀 켈든'

-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미래의 첫 부탄 축구대표팀 선수를 꿈꾸는 소녀 '켈든'에 관한 이야기였다. 정통적 가치와 성역할을 중시하는 부탄 사회에서 특별한 꿈을 쫓는 소녀가 안쓰러운 한편 대견했다. 과연 아시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만든 명품 다큐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2월 19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아나운서 전국노래자랑」

- 이날 공사 창립 특집으로 '아나운서 전국노래자랑' 편이 방송됐다. 서울과 각 지역총국 KBS 아나운서들이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아나운서들의 장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늘 시청자들을 위해 애써준 아나운서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3월 4일 보고서>

○ 1TV 「3.1운동 100주년 기획 역사저널 그날」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개해주었다. 방송을 시청하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몰랐던 3.1운동에 관한 사실들을 되짚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제작 현장 속으로!'

- 이날 '제작 현장 속으로' 코너에서는 저녁일일드라마 '원손잡이 아내'의 제작 현장을 보여주었다. 배우들

이 평소 대본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하는지, 연기할 때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 등 궁금하던 점을 알 수 있어 재미있었다. 또한 한 편의 드라마가 제작되기까지 배우들은 물론, 수많은 제작진이 현장에서 무수한 땀을 흘린다는 사실에 감동 받았다. 시청자들이 알 수 없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어 감사하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이날 ‘KBS 스페셜’은 그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부동산 광풍 실태와, 전 세계 유례없이 늘어나는 중국의 빈집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빈집이 130만 채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해당 방송을 유심히 시청했다.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감사하다. <4월 1일 보고서>

○ **1TV 「3.1운동 100주년 특집 아리랑 로드」‘제2편 전쟁과 평화’**

- 이날은 한민족의 고난과 극복의 노래, 아리랑을 찾아 가는 3부작 다큐멘터리 중 2편인 ‘전쟁과 평화’가 방영되었다. 방송을 통해 아리랑이 우리민족의 희로애락이 묻어있는 노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방송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긴 아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4월 1일 보고서>

○ **1TV 「2019 대구국제마라톤대회」**

-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2019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방송을 통해 선수들이 마라톤 코스를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세계 각국 선수들과 국내외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무척 감동적이다. KBS에서 실시간 중계를 해주어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육상이 꾸준히 발전하길 기원한다. <4월 8일 보고서>

○ **1TV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집」‘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1부 위대한 유산’**

-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80여 년이 흐르고서 남겨진 한국광복군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매우 감동적인 방송이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아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거리의 만찬」‘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1’**

- 제주 4.3이 71주년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는 해방 이후 이념대립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학살이 자행된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을 집중 조명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주 4.3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뤄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1TV 「제40회 근로자 가요제」**

-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된 ‘근로자 가요제’를 시청했다. 평소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근로자들이 무대에 올라 숨겨왔던 노래실력을 뽐내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 또한 걸 그룹 모모랜드의 축하공연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 가수들의 무대를 볼 수 있어 즐거웠고, 내년 ‘근로자 가요제’도 기대하겠다. <5월 3일 보고서>

○ 1TV 「어린이날 기획 국악 한마당 어린이 국악큰잔치」

-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꿈나무들이 준비한 국악 무대를 보여주었다.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 아이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하고 보기 좋았다. 긴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뜻깊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7일 보고서>

○ 1TV 「다큐 공감」가정의 달 기획 - 야생화 연정2'

- 강원도 홍천 윤무산 골짜기에서 수백 종의 야생화를 심고 가꾸며 그 속에서 네 명의 손자들을 키우는 이상범 씨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며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이상범 씨의 신념에 많은 것을 배웠다. 행복한 가족을 보며 힐링이 되었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9일 보고서>

○ 1TV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플라스틱 지구 2편 굿바이 플라스틱'

-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 스페셜」'플라스틱 지구'를 보여주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떠다니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영상을 통해 목격하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명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특집」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살아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꿈을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는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5월 27일 보고서>

○ 1TV 「동행」'원진이의 소금꽃 필 무렵'

- 내로라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범생이지만,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의 길을 선택한 원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영됐다. 어린 두 동생과 아픈 어머니를 돌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아픈 엄마의 건강을 살피고 어린 동생을 보살피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안쓰러웠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1TV 「특집 국악 한마당 천중가절 수릿날」

- 이날 방송은 단오 특집 무대로 꾸며져 평소보다 볼거리가 풍성했다. 우리의 춤과 소리에 연희가 더해져 눈과 귀가 호강하는 시간이었고, 더불어 단오의 의미도 돌아볼 수 있었다.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풍습의 의미를 되살려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전통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0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서울나무, 파리나무'

- 수종이 같은 나무라도 서울의 나무들은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선진국의 나무들은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날 방송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낸 파리의 전정 비밀을 밝혔는데 너무 놀라웠다. KBS에서 이제껏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무의 전정법에 주목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올바른 전정으로 나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길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6.25 특집 2019 국제공동제작 끝나지 않은 전쟁」**

- 한국전쟁 69년을 맞아 KBS가 해외 제작사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끝나지 않은 전쟁」을 보여주었다.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의 시작, 전개과정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유익했고, 그간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와 차별성이 보였다. 앞으로 방영될 '2부'도 몹시 기대 되며,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잠 좀 푹 자봤으면... 꿀잠 잘 자는 법'**

- 수면장애를 앓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잠을 건강하게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날 수면장애가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을 알려주고, 이어 꿀잠 자는 방법도 가르쳐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기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이제는 '서프리카'..전기 요금 얼마나?'**

- 이번 달 우리 집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능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보도였다. 올해부터 새로 개편된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어 큰 도움이 됐다. 그뿐 아니라 실내 온도를 낮춰서 전기를 아끼는 방법도 소개해주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나는 폭로한다 - 교회 성폭력'**

- 교회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목사들이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산 이후에도 목사 신분을 유지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 목회를 계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종교계의 압력이 있었을 텐데, 교회 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용기 있는 방송에 감사하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1주년 제헌절경축식」'국회의사당'**

-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을 시청하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또한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와 배우 김남길이 낭독한 헌법 전문이 기억에 남는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에 의미 있는 경축식을 개최해주어 감사하다. <7월 18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암과의 전쟁 1편 인류의 반격, 면역항암제'**

- 이날 「생로병사의 비밀」이 700회를 맞이해, 최근 의학계의 주목을 받는 차세대 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와 개인맞춤 항암치료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부분이 유익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균형감 있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아리랑 로드」'제2편 전쟁과 평화'**

-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묻어있는 노래인 '아리랑'을 조명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전승 경로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전 국민의 협력과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8월 5일 보고서>

○ 1TV 「**광복절 기획 전국노래자랑**」**‘경북 울릉군 편’**

- 이번 방송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진행됐다. 흥과 끼가 넘치는 출연자들과 초대 가수들의 무대를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최근 많은 장수 프로그램들이 종영되어 아쉬운 가운데, 「전국노래자랑」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다행스럽다.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시사기획 창 밀정 제1부 배신의 기록’**

- 우리 독립운동 진영의 치명적 정보를 일제에 빼돌린 사람들인 ‘밀정’에 대해 집중 취재해 방송했다. 무엇보다 밀정 혐의자들 가운데 현재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간 밀정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어 감사하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맛과 추억, 역사의 땅 벨기에 플랜더스’**

-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벨기에 플랜더스를 소개했다. 방송을 통해 중세시대 성당부터 백작의 성까지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 아름다운 벨기에 플랜더스를 소개해주어 감사했고, 앞으로도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8월 20일 보고서>

○ 1TV 「**추석특집 살다보면 그 곳이 그림다**」**‘제1편 죽설현과 용늪’**

-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세계적인 희귀 고원습지 ‘용늪’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기에 방송을 시청하며 굉장히 놀랐다. 시청자들에게 숨겨진 비경을 소개해주어 감사하고, 용늪의 가치를 더욱 더 알려주기 바란다. <9월 16일 보고서>

○ 1TV 「**추석 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

- 추석 당일, 분단의 생생한 현장인 임진각에서 이산가족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산가족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방송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9월 16일 보고서>

○ 1TV 「**KBS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멋졌어요**」**[첫회]**

- 나눔을 실천하는 두 회사, 씨엔티테크와 코아드가 소개됐다. 특히 훌륭한 복지의 중소기업 코아드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백 세 시대를 맞이해 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말 출근하고 싶은 회사였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방송이었고, 해당 방송을 통해 더 많은 회사들이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9월 20일 보고서>

○ 1TV 「**다큐멘터리 3일**」**‘꿈 한 그릇, 배달 왔습니다-서울 강남구 공유주방 72시간’**

- ‘배달형 공유주방’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사람들의 72시간을 보여주었다. 창업을 망할까봐 두려운데, 배달형 공유주방으로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모습이 현명해 보였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 변화하는 요식업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어 무척 유익했다. <9월 30일 보고서>

○ 1TV 「**특집 어린이 교통안전골든벨**」

- 평소 「도전, 골든벨」을 꼭 시청한다. 이날은 전국에서 모인 초등학생 100명과 함께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를 푸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덕분에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의식도 키우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도 해볼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하게 느껴졌다. 추후에도 종종 ‘교통안전골든벨’을 제작해주

면 좋을 것 같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 대한민국 공군창군 70주년을 맞아 공군장병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공군군악대와 공군의장대, 공군중창단이 함께 한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또한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출연해서 눈과 귀가 즐거웠다. 늘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0월 8일 보고서>

○ 1TV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바보들의 행진'

- 2019년 한국영화 탄생 100년을 맞아, 한국영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을 소개해주었다. 해당 방송을 통해 70년대 청년문화를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중장년층에게 의미 있는 영화를 편성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장기기증 희망 등록' 16살부터 가능'

-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다는 보도를 접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장기 기증에 있어서만큼은 최하위라고 한다.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기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해주어 감사하다. <11월 6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세상 끝의 집 -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1부'

- 경북 상주 산곡산 자락에 위치한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을 소개했다. 스스로 선택한 좁은 공간에서 영원의 진리를 쫓고 있는 수도자들의 삶에서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아시아 유일의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감명 깊은 방송을 제작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12월 23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 벌」

-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즌1을 재미있게 시청했던 시청자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추악한 진실을 맞닥뜨린 조들호(박신양 분)가 인생 최대의 라이벌을 만나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그가 지켜왔던 정의에 균열이 생기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여 기대가 된다. 또한 믿고 보는 배우 박신양과 고현정의 출연에도 기대가 크다. 앞으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1월 10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왜그래 풍상씨」

- 동생 바보로 살아온 중년 남자 이풍상(유준상 분)이 동생들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러 다니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시청했다. 가족에게 헌신적인 주인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감동적인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월 25일 보고서>

○ 2TV 「세상의 모든 다크」'서프러제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1부'

- 세계의 우수 다크멘터리를 다양하게 소개해 주어 늘 관심을 갖고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나섰던 여성들에 대한 다크멘터리였다. 지금은 당연히 되는 여성 참정권이지만, 불과 100년 전만해도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리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다양한 다크멘터리를 소개해 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장사의 신 - 연 매출 10억! 꽃게장정식’**
  -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생생한 현장을 생방송으로 전달해 주어 매일 저녁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맛집을 소개해 주는 코너를 가장 유심히 시청한다. 이날은 꽃게장정식이 소개되었는데, 언제 한 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군침이 돌았다. 늘 시청자들이 궁금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아주어 감사하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영상앨범 산」‘애환의 역사가 깃든 풍경’**
  - 국내외의 명산을 소개해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 투쟁의 역사가 깃든 어등산과 무등산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편,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다. 송고한 역사와 멋진 풍경을 품은 명산을 소개해 주어 감사하다. <3월 5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오전에 다양한 현장 소식과 함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사고는 물론, 생활 정보와 문화 정보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점에 무척 감사하다. 또한 어떠한 사건에 대해 보도할 때 단순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설명, 그리고 관계기관의 책임 문제까지 다루어 유익하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삶을 노래한 시대의 동반자, 정태춘 & 박은옥’**
  - 이날의 전설은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쓴 정태춘-박은옥 부부였다. 모처럼 방송에서 주옥같은 노랫말과 시대를 대변한 노래들을 감상하니 옛 추억도 떠오르고 너무 재미있었다.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정태춘-박은옥 부부 특집을 꾸며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동 가득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1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한국 승소’**
  -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결과 우리나라가 승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다행스럽고,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 더불어 유익한 보도를 해주어 감사하다. <4월 15일 보고서>
  
- **2TV 「2019 세계 피겨스타초청 아이스쇼」**
  - 이날 KBS를 통해 ‘2019 세계 피겨스타초청 아이스쇼’를 시청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그리고 은반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아름다운 무대를 볼 수 있어 가슴 벅찼다.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의 환상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스쇼를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4월 22일 보고서>
  
- **2TV 「어린이날 기획 다큐멘터리 3일」‘도시 아이들, 농촌으로 간 이유는? - 예천 농촌유학생 72시간’**
  - 경북 예천의 복천마을, 도시를 떠나 시골로 유학 온 11명의 초등학생들의 72시간을 보여주었다.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학원을 전전하는 도시 아이들과 달리, 이곳에는 학원도 없고 스마트폰도 자진 반납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7일 보고서>

○ 2TV 「KBS 경제타임」

- 우연히 해당 방송을 접하게 된 이후로 평일 오후마다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경제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기 바란다. <6월 14일 보고서>

○ 2TV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짖이」

- 첫 방송된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짖이」를 시청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인물, 지식 등의 숨겨진 이야기를 쉽고 유쾌하게 전해준다는 기획의도처럼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원전 폭발 이후 후쿠시마는 안전한가를 다룬 부분이 주목할 만 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짧고 쉬운 지식을 많이 전달해주기 바란다. <7월 18일 보고서>

○ 2TV 「덕화TV2 덕화다방」

- 이덕화·김보옥 부부와 아르바이트생 허경환, 일일 아르바이트생 김완선의 다방 오픈 첫 날 이야기를 시청했다. 오픈 시간이 임박하자 손님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이 풋풋하고 보기 좋았다. 특히 이덕화·김보옥의 현실적인 부부싸움도 재미있었다. 앞으로의 방송도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8월 1일 보고서>

○ 2TV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 별 헤는 밤」

- 운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시청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KBS에서 운동주를 기억하기 위한 방송을 기획했다. 배우들의 시낭송 무대와 국내 최정상 가수들의 헌정무대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8.15 광복절에 운동주를 기리는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8월 19일 보고서>

○ 2TV 「추석특집 부르면 복이 와요 달리는 노래방」

- 노래방 트럭을 타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흥과 끼가 넘치는 시민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색다른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무엇보다 노래를 잘 해야만 선물을 획득하는 기존 프로그램들과 달리, MC들이 부른 노래 점수와 같기만 하다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추석을 맞아 흥미진진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9월 16일 보고서>

○ 2TV 「KBS 특별기획 드라마 생일 편지」

- 1945년 일제강점기 말미부터 광복을 거쳐 한국전쟁까지, 험난했던 그 시절을 겪은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정신대로 끌려간 여일애(조수민 분)와 철거 현장에 징용된 김무길(송건희 분)의 사랑이 너무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좋은 작품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9월 18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 이날 황용식(강하늘 분)과 동백(공효진 분)이 손잡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켰고, 이 소문으로 동네 전체가 술렁이는 내용이 방영됐다. 믿고 보는 배우들에 개성 있는 캐릭터와 톡톡 튀는 대사가 더해지며 굉장히 재미있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스릴러까지 가미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 된다. <9월 27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매주 월요일마다 정말 재미있게 시청해온 「안녕하세요」가 지난 9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이 종영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섭섭하다. 마지막까지 소통의 장을 만들며 웃음을 선사해주어 감사하고, 다시 시즌2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0월 2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여섯 명의 맛을 잘 아는 스타들의 첫 만남부터, 메뉴 개발에 돌입하는 이야기가 방영됐다. 스타들이 공개한 메뉴 중에서 승리한 메뉴가 방송 다음 날 실제로 전국의 편의점에서 출시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TV 속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고 싶은 시청자들의 바람을 실현시켜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메뉴들이 탄생할지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10월 28일 보고서>

○ 2TV 「일자리 천국 굿잡」

-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 주는, 맞춤형 직업 찾기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나를 성장 시켜주는 굿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 돈도 벌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이 소개 되어 굉장히 유익했다. 유래 없는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연정훈, 문세윤, 김선호, 딘딘, 라비와 김종민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새로운 멤버들의 좌충우돌 적응기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1박 2일」의 네 번째 시즌이 마침내 시작되어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할 테니 재미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2월 10일 보고서>

○ 1R 「생방송 일요일 아침입니다」

-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해당 프로그램을 꼭 시청한다. 교통이나 날씨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개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된다. 본인은 특히 2부에 마련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코너를 좋아한다. 고정 패널인 김선호 초등학교 선생님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늘 힘이 된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1월 21일 보고서>

○ 1R 「주말 생방송 정보쇼」

- 한 주간간의 시사를 정리해볼 수 있어서 주말 오후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뿐 아니라 인문, 역사, 생활정보 등도 두루 다뤄주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함께해주어 방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주는 '성공하는 학생의 7가지 습관',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 설계' 등의 주제가 특히 유익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1R 「박종훈의 경제쇼」

- 이날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한국경제의 전망을 짚어주었는데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 늘 경제 관련 이야기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서 경제와 관련된 궁금하고 흥미로운 이슈들을 친절하고 쉽게 풀어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관련 소식들을 유쾌하게 풀어주시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그날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 주어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무엇보다 화제성 뉴스 및 사건사고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 주는 점이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청취하지만, 그 중에서도 '김성완의 시사夜'만의 진정성 있는 내용이 참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겠다. <3월 7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꼭 필요한 경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매일 출근길에 유용하게 청취하고 있다. 특히 목요일마다 방송되는 '투자 가이드' 코너를 애청한다. 앞으로도 경제와 법률,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주기 바란다. <4월 26일 보고서>

○ 1R 「스포츠 스포츠」

- 스포츠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청취자로, 매일 저녁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관련 소식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스포츠 소식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주는 점이 이 방송의 매력이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전문 기자들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제대로 된 스포츠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전국 각 지역의 소식을 전달해 주어 매일 오후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날씨와 교통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점이 크게 도움 된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소식을 전국으로 전달해, 지역 방송 활성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 <6월 24일 보고서>

○ 1R 「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

- 주말 아침마다 청취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양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해 들려주어서 애청하고 있다. 방송에서 소개해주는 책들도 무척 유익하고, 선곡도 좋아서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1R 「뉴스 증계탑」

- 그날의 주요 사건·사고는 물론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곁들여 주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늘 본인이 궁금해 하는 정치, 경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이 알찬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8월 26일 보고서>

○ 1R 「58분 날씨」

- 58분마다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출근 전인 오전 6시대의「58분 날씨」를 특히 애청한다. 최근 전국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해당 방송을 더 열심히 들었다. 매 시간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부탁한다. <9월 11일 보고서>

○ 1R 「뉴스 월드, 최영일입니다」

- 한 주간 일어난 지구촌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주말 오전마다 재미있게 청취한다. 이날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키워드를 뽑아서 국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척 유익했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길 바란다. <10월 29일 보고서>

○ 1R 「바른말고운말」

- 청취자들의 바른 말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언어 순화에 이바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방송 덕분에 바른 말 사용은 물론이고, 속담이나 관용구 등도 다양하게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11월 11일 보고서>

○ 1R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여성의 시각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주중에는 오전 10시마다 꼭 청취한다. 특히 매일 뉴스를 선정해 해설을 곁들여주는 '뉴스픽' 코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 갖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골든 팝스」

- 중장년층 청취자들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적절하게 선곡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음악과 함께 청취자들의 사연을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팝의 전성기인 7-80년대 명품 팝송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좋은 음악을 많이 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1월 15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청취자들이 좋아할만한 익숙한 가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듣는다. 덕분에 좋은 노래들과 함께 생생한 사연들도 들을 수 있어 재미있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늘 유쾌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랜 친구 같은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해 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2R 「조충현의 럭키세븐」

- 본인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항상 라디오를 곁에 두고 청취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데, 좋은 음악과 더불어 유익한 생활정보까지 제공해 주어 늘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2R 「김선근의 럭키세븐」

- 이날 오전 '김선근의 럭키세븐'을 청취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해당 방송 덕분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좋은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매일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유쾌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5월 10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 본인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감미로운 음악과 따뜻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 해당 방송을 매일 청취한다. 가수 겸 작곡가 조규찬 씨의 편안하고 푸근한 진행도 이 방송의 매력이다. 늘 좋은 선곡으로 청취자들이 즐거운 아침을 보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방송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2R 「양파의 음악정원」

- 소소한 이야기와 편안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정신없이 오전 시간

을 보낸 후 이 방송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참 좋다. 특히 이날은 토이, 김완선, 장필순 등 예전 가수들의 히트곡을 선곡해주어 추억에 젖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좋은 선곡으로 즐거움을 전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3R 「연속낭독」

- 매일 아침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이 방송에서 읽어주는 책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 많아서 늘 잔잔한 감동을 받고 있다.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읽어주는 책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종종 구입하고는 한다.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월 28일 보고서>

○ 3R 「내일은 푸른하늘」

- 장애를 앓고 있는 청취자이다. 매일 오후 '내일은 푸른하늘'을 청취하며 장애 극복의 의미를 찾고, 재할 의욕을 높일 수 있었다. KBS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주어 늘 감사하게 여긴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 되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3R 「라디오 여행기」

- 마음의 양식이 되는 여행기를 선정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처럼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청취자들에게는 여행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기분 전환이 된다. 바쁜 일상 때문에 여행을 떠날 여유가 없는 청취자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 방송에 늘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4월 18일 보고서>

○ 3R 「사랑의 책방」

- 매일 오전마다 '사랑의 책방'을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소설과 인문학은 물론, 다양한 고전과 명작을 두루 소개해주어 무척 유익하다. 특히 일요일에는 과학 전문 서적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본인처럼 과학을 어려워하는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코너를 통해 문학의 가치를 전해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하여 최신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 처방으로 함께 따라 해보는 운동요법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유익하다. 앞으로도 궁금한 건강 관리법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어주길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음악은 평범한 일상에 설렘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가정음악'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소개 받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는 청취자이다. 또 해당 방송에는 요일 별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영화, 재즈 등 대중문화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어 유익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어 매일 오후 편안한 마음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감상한다. 본인은 늘 클래

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이 클래식으로 가는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방송을 통해 정서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낮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의 음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더불어 동서고금의 풍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하다. 매일 오후 방송을 들으며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추후에도 꾸준히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과 퓨전 음악을 소개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매일 두 시간씩, 곡 자체보다는 녹음 예술로서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음반들을 중심으로 선곡해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곡에 얽힌 문화사적인 배경, 또는 음반과 연주자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함께 들려주어서 너무 유익하다. 전문적이고 품위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4월 4일 보고서>

○ **1FM 「JAZZ 수첩」**

- 재즈를 좋아해서 주말 밤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재즈는 다소 어려운 음악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하고 정감 어린 재즈를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듣기에 편안하고 귀에 익숙한 재즈를 많이 소개해 주면 좋겠다. <4월 23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클래식은 늘 어려운 장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는데, 「생생클래식」 덕분에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조금씩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따라 선곡이 너무 좋아서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양한 코너를 통해 클래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명곡들을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FM 「정다운 가곡」**

- KBS의 클래식 FM을 늘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감상할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한다. 유명한 가곡도 들을 수 있지만,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새로 창작되는 우리 가곡들도 소개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가곡을 사랑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좋은 방송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5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KBS 음악실」의 오랜 애청자이다.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어 매일 오전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에 방영되는 '음악실 매거진' 코너를 좋아한다. 다가올 한 주의 공연 소식을 소개해주어 굉장히 유용하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연주를 충실하게 전해주기 바란다. <7월 15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몇 안 되는 성악곡 전문 프로그램이다. 예술가곡, 민요, 오페라,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소개해주어 잘 듣고 있다. 특히 오후 시간대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8월 22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세계각지의 연주회 실황을 입수해서 최신 연주를 들려주는 획기적인 방송이다. 퇴직 후 무료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있다. 음악회를 생생한 현장음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점이 이 방송의 가장 큰 매력이다. 앞으로도 깊고 풍부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2월 19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음악앨범'의 오랜 청취자이다. 좋은 음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 매일 청취한다. 특히 수요일에 방송되는 '퀸 스팅 아델 말고' 코너를 좋아하는데,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무척 뜻깊다. 늘 세심하게 엄선한 음악으로 청취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월 17일 보고서>

○ **2FM 「박은영의 FM대행진」**

- 상쾌한 음악과 선별된 정보들을 전달해 주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이날따라 선곡된 곡들이 너무 좋아서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다. 늘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2월 14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좋은 노래와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싶어서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어서 즐거운 두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늘 번치 않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2월 28일 보고서>

○ **2FM 「조승연의 굿모닝팝스」**

- 매일 아침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이다. 팝송과 영어회화를 접목시켜 영어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 특히 영어 표현을 익히면서 문화의 폭까지 동시에 넓힐 수 있는 'Beyond Cinema' 코너를 유익하게 듣고 있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10일 보고서>

○ **한민족R 「팝스 프리덤」**

- 새벽에 진행되는 방송이라서 청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팝스 프리덤'을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지구촌 곳곳의 따끈따끈한 소식과 팝가수들의 최신 소식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감동을 주는 오랜 팝송을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감성적이고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를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중장년층이 회상에 젖을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흘러간 노래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이날은 가수 한경애 씨가 출연해서 청취자들에게 근황을 들려주고, 노래도 들려주어 무척 반가웠다. 앞으로도 해당 방송을 통해 근황이 궁금한 가수들의 소식과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2월 26일 보고서>

○ **한민족R 「라디오 극장」**

- 새벽 라디오를 즐겨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특히 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 들려주는 '라디오 극장'을 늘 재미있게 듣고 있다. 성우들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연기를 해주어 재미가 배가 된다. 항상 좋은 작품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민족의 정서와 생각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문학작품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한민족R 「시대음감」**

- 음악 평론가 김태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말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다. 음악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는 설정이 좋고, 더불어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부분도 많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풍부한 주제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29일 보고서>

## | 9. 표현(소재) |

○ **1TV 「2019 신년대토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 '신년대토론'을 시청했다. 부의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비롯해 현재 전반적인 우리사회 분위기가 부자를 적폐로 몰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동정과 공감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감성만 앞세운 토론을 하기 보단, 소득격차를 인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개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자연을 닮은 맛 장아찌'**

- 리포터가 장아찌 달인을 찾아 전남 장성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키운 싱싱한 더덕과, 직접 담근 어머니 표 고추장으로 더덕장아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몇몇 주민과 리포터가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앞에 두고 웃고 얘기하는 모습이 무척 비위생적으로 여겨졌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 이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대자연의 위대함과 생태계의 신비로움에 감탄한다. 세계 일류의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이 제작한 고급 다큐멘터리들을 엄선해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하는 동물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과 관계없이, 정글이나 밀림 등지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가수가 꿈이었던 사람들에게 꿈의 무대를 선사하는 '도전! 꿈의 무대' 코너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참가자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흥겨운 무대를 본 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에게 투표도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정작 실력보다 사연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 본인의 슬픈 사연을 말할 때부터 득표수가 올라간다. 절실한 사연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는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열네 살 농부 지훈이'

- 열네 살 농부 지훈이의 이야기를 시청했다. 제주시에 감귤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일손을 거드는 모습이 기특했다. 그러나 지훈이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몹시 우려스러웠다. 법적으로 18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지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건 도로가 아닌 제한된 구역에서 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이 나왔지만, 전체 관람자인 방송에서 너무 비교육적인 장면이었다.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지게차 재해인 만큼, 앞으로는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안전 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스튜디오에 전문가를 초대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어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본인은 중요한 정보가 나올 때 빨리 메모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는 편인데,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정보가 적힌 판넬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할 때가 많아 사진 찍기가 불편하다. 앞으로는 판넬이 가려지는 일 없이,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고창고등학교 편'

- '한국의 대표 시인으로, 한국의 보들레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답은 미당 서정주였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친일문학을 발표했고, 문학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던 인물이다. 더욱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미화하는 문제를 출제한 점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국민감정을 신경 써서 문제를 출제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토론쇼 시민의회 스페셜」

- 2020년 총선까지 410일을 앞두고 세비 증액 없는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토론했다. 방송 자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몰랐던 부분을 깨우쳐 주어 유익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증가를 반대할 것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러웠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고 앞으로도 결코 세비 증액이 없다는 약속만 한다면 국민들은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에서도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다루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나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먼저 다루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KBS 긴급진단 미세먼지가 삼킨 대한민국」

- 재난방송 주관기관인 KBS에서 미세먼지 사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특집 좌담 생방송을 제작해 주어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로 중국 발 영향은 얼마 정도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을 내놓아 답답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 중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긴급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려주길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안전 대책은?'

- 최근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위해 나이 들면 운전대를 놔야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고령 운전의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토론했다. 그런데 방송은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 젊은 운전자

또한 언제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나경원 '원색적 연설'...민주주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두 의원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다. 진행자 또한 두 의원의 분쟁을 중재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앞으로 패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시청자들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6일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 양지원이 호소력 짙은 무대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도 양지원의 감동적인 무대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았는데, 그가 지인을 동원해서 비정상적으로 승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제작진과의 상의 끝에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당 가수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입주민 울리는 부실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실체'

-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100: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A건설사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음에도, 미완공된 아파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런데 정작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건설사는 공개하지 않아 답답했다. 부실시공 논란의 실체를 취재한 만큼,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건설사를 공개했더라면 더욱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거리의 만찬」'유일한 증언자'

-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 씨가 출연해, 사건 당시 21살의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위협과 싸워온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윤지오 씨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방가 방가'라는 자막이 사용되었는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조롱하는 의미로 비쳐 보기 안 좋았다. 균형을 잡아야 할 언론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건 자칫 공영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1TV 「특별 생방송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가다」

-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피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특별 생방송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가다' 방송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는데, 글씨 크기가 작아서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좋은 뜻으로 하는 방송이니만큼, 온정의 손길이 더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미세먼지, 3가지 의문점'

- 미세먼지의 주범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 방송은 중국의 오염물질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동안 간과했던 북한의 오염물질에 주목했다. 그러나 중국은 수도 베이징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을 해안가로 대거 이전한 바 있다. 방송에서 이 점을 심층적으로 다뤄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 아파트를 덮치다'

- 몇 년 전, '추적 60분'에서 '라돈'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굴지의 한 대기업 건설사에서 분양한 신축 아파트에서 기존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를 공개하지 않아 답답했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건설사를 공개했다라면 더욱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다. <4월 22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멀지만 가야 할 먼 길'

-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있는 후 1년이 지났다. 그래서 KBS를 통해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방송 초반 일본인 플루트 연주가 타카기 아야코와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아야코의 기념 공연이 있었는데, 일본인 출연자는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출연자를 섭외했다라면 더 좋은 행사가 되었을 것 같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별의별 중계 [창원총국]」'해금강 유람선 관광'

- 시민들의 일상을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하는 신선한 포맷의 방송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인데도 해설을 붙이니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날은 '해금강 유람선 관광'을 중계했는데, 운행 중인 배 위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춤을 추는 모습이 위험해보였다. 요즘 사건사고도 많은데 안전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어버이날 기획 거리의 만찬」'오버 더 레인보우'

- 이날은 '성 소수자'들의 어머니들이 출연했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자녀들을 위해 사회와 맞서 싸우는 부모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성 소수자의 권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성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동성혼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 벌어질 상황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입장만큼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다뤄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5월 13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00세의 비법, 장수 밥상'

-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건강밥상의 비밀을 파헤쳐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물론, 우리나라 장수노인들의 식사 패턴의 특징까지 살펴주어 무척 유익했다. 그런데 장수노인의 밥상을 설명할 때 밥상 위로 파리가 날아다니고, 심지어 식재료 위에 앉는 장면까지 방영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앞으로 식재료를 다룰 때는 위생적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오늘도 혼자 잘 먹겠습니다'

- 혼자 먹는 밥을 줄여서 '혼밥'이라 부른다. 이날 방송은 혼밥 생활자들의 밥상을 소개했다. 그 중 귀농 2년 차를 맞은 위대용 씨의 밥상으로 '족타냉우동'과 '오꼬노미야끼'가 소개됐다. 그런데 우동과 오꼬노미야끼는 대표적인 일본 요리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될 수 있으면 한식 위주로 소개해주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혼전 동거를 해도 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했다. 최근 젊은 미혼 남녀 사이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동거라는 문화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거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해당 주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 이날 방송은 광복절 특집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태극기를 든 인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태극기 깃대 위치가 왼쪽(건곤감리 중 건 옆)이어야 하는데, 오른쪽에 꽂혀 있어 보기 불편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14일 보고서>

○ 1TV 「긴급대담 조국 임명, 격랑의 정국 어디로」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앞으로 전개될 정국을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해 벌어질 각종 충돌 등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까 우려스럽다. <9월 11일 보고서>

○ 1TV 「2019 퀴즈 온 코리아」

- 한글날을 맞이해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퀴즈 축제인「2019 퀴즈 온 코리아」가 방영됐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겨루고, 부채춤 등의 장기자랑을 선보여 무척 재미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한글날이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아름다운 우리말로 프로그램명을 지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한다. 그런데 곡이 시작될 때만 제목을 표기해주는 점이 아쉽다. 때때로 곡의 중반부터 시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곡이 진행되는 중반이나, 곡이 끝났을 때 제목을 한 번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10월 23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한일관계, 인식과 이해 제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

- 한일 관계의 막힌 출구를 찾기 위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 일본의 리버럴 세력과 우익을 대표하는 신문사의 특파원 출신 한일 관계 전문 기자들이 모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본의 주장과 시각이 강조된 대화 내용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방송을 제작한 것에 많이 실망스러웠다. <10월 28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슬기로운 정보달력'

- 새해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날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부가 출연하여 유심히 시청했다. 30kg을 감량한 후, 4년째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비법이 몹시 궁금했다. 그런데 그저 거실바닥을 구르고, TV를 시청하며 탈춤을 추는 등 별 다른 비법이 소개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정확히 어떠한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몇 시간을 해서 얼마의 칼로리가 소모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소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월 4일 보고서>

○ 2TV 「잠시만 빌리지」

- 이날 정인&조정치 가족, 박지윤 가족, 김형규 부자가 집을 벗어나서 해외의 한 도시에서 느긋하게 살아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시청하는 동안 딱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행했던 단어인 '소확행'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많은데,

굳이 해외에 나가 비싼 제작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보다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방송인 황광희가 축구선수 박주호의 자녀인 나은과 건후를 데리고 찜질방에 놀러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 나은이가 황광희의 심부름을 수행하던 중 식혜를 쏟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황광희가 걸레나 휴지가 아닌 찜질방에서 사용하는 수건으로 바닥에 옆질러진 식혜를 닦아서 보기 안 좋았다. 마음이 급했던 건 이해하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수건이니만큼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신경써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2TV 「6자회담」

- 6명의 MC들의 신체 기대수명을 공개했다. 이어 6명의 MC들의 방송 기대수명도 공개했다. 1위는 이경규로 예상 방송수명이 89세였다. 그런데 이경규의 신체 기대수명은 79세였다. 그러자 '죽어서도 돈을 버는 예능 대부 클래스', '제사 예능' 등의 자막이 나와서 보기가 안 좋았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의도는 알지만, 출연자를 너무 희화화하는 자막 사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실속 있는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다. 때때로 방송에서 제안한 루트를 따라 여행하기도 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간혹 시간과 돈을 들여 찾아간 여행지의 식당이 방송에서 소개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식당만 소개해주면 좋겠다. <2월 18일 보고서>

○ 2TV 「입맞춤」

- 아홉 명의 남녀 가수들이 모여서 최적의 듀엣 파트너를 찾아나서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남녀 가수들이 무대에서 멋진 듀엣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이, 여타의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떠오르게 해서 조금 식상했다. 추후에는 가수들이 노래 실력으로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여 조금 더 흥미로운 방송이 되길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일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개그 콘서트'를 시청한다. 예전에는 매주 새로운 개그를 통해 웃음을 선사해 주어 무척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재가 떨어진 듯 새로운 개그 없이, 비슷비슷한 포맷의 코너 뿐이라 전반적으로 지루해진 느낌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웃음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대물을 찾는 사람들'

- 해발 1,000m에서 자라는 대물인 '잔나비걸상버섯'을 찾는 사람들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대물을 찾기 위해 산을 헤집고 다니다보면 소중한 자연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산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 굳이 방송에서 이런 행위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자연과 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젊은 실력파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해왔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편곡의 패턴이 비슷하고, 동일한 가수들의 반복적인 출연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연자들을 섭외해 색다르고 신선한 무대를 보여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나경원 '달창' 발언 일파만파'

- 자유한국당의 4차 정부 규탄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날 뉴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정치권 막말 파문으로 두루뭉술하게 보도한 점이 안타까웠다.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댄 막말이 얼마나 품위 없는 행위인지 비판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5월 15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퍼퓸」

- 패션 디자이너 서이도(신성록 분)와 모델 계에서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 민예린(고원희 분)에게 찾아온 판타지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독창적인 전개가 무척 매력적이었다. 다만 첫 장면에서 민재희(하재숙 분)가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보기 불편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자살 등 극단적인 소재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전래동화 '콩쥐팥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인 팥쥐에게 원님이 내린 벌은?'이라는 문제였는데, '팥쥐를 젓갈로 만들었다'가 정답이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던 중 너무 잔혹한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15세 이상 관람가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토록 잔인한 문제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6월 19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열다섯 살 누렁이 일소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사연'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무심결에 지나치는 일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일소 누렁이와 우정을 나누는 양종석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물론 감동적인 이야기였지만, 「제보자들」보다는 「인간극장」에 어울릴법한 소재였다. 기획의도에 맞게 기이한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주길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매주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성찰 프로그램'이라는 기획의도와 달리, '먹방' 위주로 방송이 제작되고 있는 듯 하다. 먹는 방송은 이미 너무 많으므로, 기획의도처럼 보스들의 자아성찰을 보여주기 바란다. <7월 9일 보고서>

○ 2TV 「유벤투스FC 초청축구 친선경기」'팀K리그:유벤투스FC-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KBS에서 중계를 해주어 기대를 품었는데,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경기 개시 시간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그뿐 아니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아쉬움은 더욱 컸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그 명성에 걸맞은 매너를 보여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7월 29일 보고서>

○ 2TV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예선」'대한민국:멕시코-러시아-'

- KBS 중계를 통해 우리나라 여자 배구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세계예선에서 멕시코 팀을 완파하는

멋진 모습을 시청했다. 그런데 스코어판이 회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득점이 표기되어 제대로 읽기 어려웠다. 현지 송출로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후에는 시청자들을 배려해서 보다 알아보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8월 5일 보고서>

○ 2TV 「무한리필 샐러드」

- 지난 26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무한리필 샐러드」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다. 또한 진행자 역시 타 방송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차례 활약한 바 있어 진부한 느낌이다. 앞으로 신선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시청자의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켜주기 바란다. <8월 29일 보고서>

○ 2TV 「지식채집프로젝트 배짱이」'조국이 던지는 딜레마'

- 최신 이슈를 15분 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쟁을 다뤘다. 그런데 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던 중, 내레이션이 대통령을 계속 문재인이라고 언급해서 듣기 불편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호칭을 신경써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9월 5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현주엽 편'

- 현주엽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울산을 방문했다. 그런데 울산행 KTX에서부터 선수들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시작해서, 울산에선 언양 불고기 맛집을 방문하여 모든 소고기 구이에 육회, 육사시미, 불고기까지 엄청난 먹방을 선보였다.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성찰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달리, 오직 먹는 모습만 보여줘서 실망스러웠다. <9월 1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조선로코 녹두전」

- 전녹두(장동윤 분)가 무월단의 미션을 완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손에 땀을 쥐며 시청했다. 그러던 중 전녹두의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했는데, 전녹두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차율무(강태오 분)에게 키스를 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남자 배우가 키스하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공영방송이고, 15세 이상 관람가인 만큼 파격적인 장면은 조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0월 18일 보고서>

○ 2TV 「고립낙원」

- 문명과 도시에서 벗어나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자유인들의 삶을 다뤘다. 이날은 보스니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부를 소개했다. 보스니아 출신 한이안(한국명)이 출연하고, 러시아 출신 일리야 벨랴코프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그런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내레이션을 맡긴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굳이 외국인을 섭외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1박 2일」'Welcome to 흑한기 아카데미'

- 시즌4 멤버들이 야생의 추위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흑한기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방송 말미에 '입수 복불복' 게임이 진행됐고, 김종민과 문세윤이 최종 입수자로 선정되어 계곡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겨울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은 시기인데, 입수까지 하는 모습이 무척 위험하게 보였다. 더구나 아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게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2월 24일 보고서>

○ 1R 「58분 날씨」

- 매일 오전 출근길에 '58분 날씨'를 참고한다. 생활과 기상정보를 결합한 날씨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늘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나쁜 요즘 같은 시기엔,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3월 14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매일 오후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들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해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예술가곡, 민요, 오페라,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들려주는 성악곡 전문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르가 오페라에 한정된 듯하다. 오페라 곡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청취자들이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곡해 주면 좋겠다. <12월 4일 보고서>

○ **기타 「KBS 교향악단 제742회 정기연주회 홍보영상」**

- KBS를 시청하던 중, KBS 교향악단의 742회 정기연주회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피아노 협연자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를 소개할 때 '청순한 외모', '매혹적인 자태'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여성으로의 매력을 연주자의 자질이나 경력보다 앞세워 어필한 것 같아서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 홍보영상 제작 시 이런 부분을 주의해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 10. 언어 |

○ **1TV 「인간극장」**

-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도 받고 자극도 받는다.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들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레이션이 반말로 진행되어 듣기 불편한 면이 있다. 내레이션이 존댓말로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 <10월 22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혼행 필수 코스 여행기!'**

- 혼자 떠나는 여행의 매력을 소개해 주었다. 한국 경주부터 프랑스, 태국, 하와이, 네팔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색깔이 짙게 녹아 든 여행코스를 알려주어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방송 내내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혼행'이라는 줄임말로 표현했는데, '혼행'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요즘 줄임말 열풍으로 세대 간 소통장애를 겪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라도 올바른 단어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덕화티비」**

- 배우 이덕화 씨가 구독자 증가를 위해 가수 겸 화가인 솔비와 함께 닭볶음탕 먹방에 도전했다. 그런데

자막에 표기된 '닭도리탕'은 일본어로, '닭볶음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랜선 집들이'

- 매주 화요일, 인테리어 고수들의 집을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코너가 있다. '랜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사전을 찾아보았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랜선'은 공유기를 PC와 연결하는 선으로, 인터넷을 통한다는 뜻인 것 같다. 청소년들이 SNS 상에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르신들도 시청하는 공영방송에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6월 12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건나파블리, 서울에 뺏다'

- 축구선수 박주호가 나온 이후 남매를 데리고 한강을 찾았다. 평소 해당 방송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사랑스럽다는 뜻의 '러블리'를 합성하여 '나블리' '건블리' 등으로 불려왔다. 그런데 이날 소제목에 사용한 '건나파블리'라는 합성어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했다. 최근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 언론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순화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2FM 「정은지의 가요광장」

- 매일 점심시간마다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 정은지가 매번 '광고 듣고 오실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라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 청소년들도 청취할 텐데, 이런 잘못된 표현을 따라 사용할까봐 우려된다.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답게 올바른 언어 사용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8월 23일 보고서>

## 11. 방송품질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주부 시청자이다. 스튜디오에 전문연사를 초대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어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전문연사가 중요한 설명을 했을 때, 방청객의 호응 소리가 너무 크고 인위적으로 들려 집중을 저해한다. 앞으로는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청객의 호응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KBS 아침 뉴스타임」

- 국내외 주요 사건과 이슈는 물론, 살림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까지 전해주어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배경화면이 연보라색으로 바뀌어 신선했고, 방송에 새로운 활력이 느껴져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기 바란다. <4월 3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제64회 현충일 추념식」

-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다.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는데 화면이 위아래로 흔들려서 시청하는데 불편했다. 국가 유공자 후손들을 보여주는 화면은 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화면의 흔들림 없이 볼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하요초대석'에 가수 김정연이 남편과 아들과 함께 출연했다. 46살이라는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된

소감 등을 전했는데, 저출산 시대에 귀감이 되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오디오 송출 오류로 한참동안 진행자와 출연자의 말이 끊겨서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송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7일 보고서>

○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매회 무척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다만 배경음악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소리 또한 커서 내레이션에 대한 몰입을 저해한다. 앞으로 배경음악은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만큼만 적당하게 사용해주기 바란다. <8월 12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한 주간 일어난 연예계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 매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스튜디오의 배경이 온통 붉은색이라 시청할 때 눈이 금방 피곤해진다. 방송에 몰두할수록 피로가 점점 쌓이는 느낌이다. 본인 같은 시청자들을 위해 스튜디오를 눈에 편한 푸른색이나 녹색으로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다. <1월 1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음식, 건강, 살림노하우, 해외현장 등 제목처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VCR 화면이 나올 때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데, 진행자끼리 나누는 대화소리와 방청객의 호응소리가 겹쳐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 시청자들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청객 소리를 조금 줄여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 12. 시청자 참여 |

○ 1TV 「2019 신년대토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 정치의 역할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이야기했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가 시민들의 생활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에, 본인도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 그런데 문자 참여밖에 없어서 본인처럼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의 시청자는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목요 이슈 토크 나는 몇 번?'

- '목요 이슈 토크 나는 몇 번?'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급증하는 1인 가구가 사회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티벳'이라는 어플을 통해 받았는데, 본인은 휴대폰 사용에 능숙하지 않아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본인 같은 고령의 시청자들을 위해 문자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패스트트랙과 혼돈의 정국'

- 패스트트랙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강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토론했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본인의 의견을 전하고 싶어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소개되지 않아 아쉬웠다. 시청자 의견 중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실시간 문자 참여만

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진행자 및 패널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오랫동안「TV쇼 진품명품」을 재미있게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고 싶어 감정의뢰를 했고, 한 달 후 전화를 걸었는데 제작진과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도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1TV 「新 만민공동회」

-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과제 등을 토론했다.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이 신선하고 유익했다. KBS에서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주어 감사하고, 시청자들이 생방송 중 즉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준다면 더욱 유익한 토론회가 될 것 같다. <6월 11일 보고서>

○ 1TV 「동행」

-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전에는 ARS 후원에 참여하면 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과 상담한 뒤 계좌를 안내받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번거로워졌다.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후원 절차를 간소하게 바꿔주길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강력 범죄자, 신상공개'

- '목욕 이슈토크 나는 몇 번?'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티벳'이라는 어플을 통해 받았는데, 본인은 휴대폰 사용에 능숙하지 않아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고령의 시청자들을 위해 문자나 전화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길 바란다. <9월 20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토요일마다 재미있게 보고 있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라서 출연자들을 더욱 응원하게 된다. 그런데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상품이 대만, 베트남, 하와이 등 해외여행 상품권이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승팀에게 국내여행 상품권을 주면 좋을 것 같다. <10월 14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 등을 들을 수 있어 매주 월요일마다 즐겨 시청한다. 방송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방청하러 가고 싶지만, 오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방청신청이 가능해서 본인처럼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불편함이 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방청 경로를 열어주길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아내를 위해서 직접 방문하여 요리를 해주는 금요일 '셰프의 선물' 코너에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해서 회원가입부터 쉽지 않았다. 본인처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좀 더 편한 신청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강형욱 훈련사와 이경규이유비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반려견들과 반려인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

도 반려견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출연 신청을 받고 있어 본인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은 난처하다.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 2TV 「2019 KBS 연예대상」

- 기대를 품고 「2019 KBS 연예대상」을 시청했다. 평소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아서 뿌듯했다. 다만 방청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 점, 전화투표 없이 문자투표로만 진행되는 점 등이 고령의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했다. 모든 연령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2월 23일 보고서>

○ 2TV 「2019 KBS 가요대축제」

-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19 KBS 가요대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신청을 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해서 여러 차례 방청신청을 한 후 당첨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동반인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당황스럽다. 더욱이 동반인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몹시 난감하다. 당첨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12월 26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 감미로운 음악과 따뜻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특히 가수 겸 작곡가인 조규찬 씨의 푸근한 진행이 이 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때때로 사연을 보내고 싶지만,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어 문자를 전송하기 어렵다. 본인 같은 청취자들을 위해 전화와 팩스, 손편지 등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기타 「라디오 상품 배송」

- 평소 KBS 라디오를 즐겨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좋은 음악과 청취자들이 보내온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본인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후 상품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선물문의 게시판에 당첨 정보를 기재한 뒤로 무려 석 달 가량이 지난 후에야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상품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추후에는 빨리 배송해 주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기타 「공개방송 방청권 배부」

- KBS에는 방청신청을 받은 후 녹화를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여럿 있다. 본인도 녹화에 참여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티켓 배부처 앞 바닥에 번호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입장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사전에 받았다. 그러나 바닥에 번호표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 일로 언쟁이 벌어져도 제작진이나 시큐리티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도 발생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권 배부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 13. 홈페이지 |

○ 1FM 「1FM 다시듣기 서비스 중단 관련」

- 오랜 기간 KBS 라디오 1FM을 사랑해온 애청자이다. 지난 1일부터 1FM 채널의 다시듣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관계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다시듣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

고 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수많은 청취자들을 위해 다시듣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7월 4일 보고서>

## | 14. 프로그램 구매 |

### ○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다양한 동네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산책길이나 맛집 등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어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이제까지 다루었던 동네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 주기 바란다. <10월 15일 보고서>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 분야와 음식은 물론, 생활 과학에서 경제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상식이 없을 것 같은 연예인들이 옥탑방에 갇혀 열 문제를 풀어야만 퇴근할 수 있는 지식토크쇼이다. 처음에는 재미를 얻기 위해 시청했는데, 점점 상식이 늘어나는 기쁨도 함께 맛보았다. 유익한 문제가 많은데, 해당 방송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 주기 바란다. <10월 25일 보고서>

### ○ 2TV 「2TV 생생정보」

-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소개한 맛집을 찾아가거나 저렴한 생필품들을 구매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준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12월 31일 보고서>

## | 15. 보도 제언 |

### ○ 1TV 「KBS 뉴스광장」 「5·18 망언' 윤리특위 회동...'징계'까지는 난망'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분노했다. 그러나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5.18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정치권 인사가 어떠한 경위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포함됐는지 궁금한 국민들이 많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석연치 않은 경위로 유공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가려내고, 언론이 나서서 당시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2차 북미회담 서막 오르다'

-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입성했다. 그래서인지 오전부터 온종일 1TV에서 이와 관련한 방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9시 뉴스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에 대해 보도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잉보도로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3년 전 '정준영' 부실수사가 발단...휴대전화 압수도 안 해'

-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 이날 '뉴스 12'를 통해 경찰이 지난 2016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조사했는데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 언론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엄중히 다뤄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앵커의 눈] 소득 빅데이터 분석해보니...결혼도 '빈익빈 부익부''

- 결혼적령기인 30대 남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혼인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 상위 10% 남성과 하위 10% 남성의 혼인율을 그래프로 비교해주었는데, 소득이 높은 계층은 양복차림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노동복차림으로 묘사하여 보기 안 좋았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공영 방송이므로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붉은 수돗물' 100% 인재...무리한 물길 전환이 원인'

- 20일째 계속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다룬 보도를 보았다. 100% 인재라고 정부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였다. 보도를 시청하던 중,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수돗물은 과연 안전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돗물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공공재이므로, 다른 지역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6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외고·명문대·의전원...'특별한 전형' 논란'

-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 딸 문제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검증보도를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뉴스를 전달하는데 그쳐 아쉬웠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청했다. 해당 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면서, KBS가 김 차장을 인터뷰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 KBS가 김 씨의 인터뷰를 방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찰 측에 제공했는지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KBS가 취재원 인터뷰를 검찰에 전달?...'사실과 달라''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날 9시 뉴스에서 증언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으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해명 보도로도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므로, 인터뷰 영상 공개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소명해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조국 장관과 검찰 관련 취재 보도과정'**

-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다. 그런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속 시원한 해명이 아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시청자에게 모두 공개하고 해명해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추락 직전 '짧은 비행'**

- 지난달 31일, 독도경비대 헬기장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이륙 2~3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KBS에서 추락사고 직전 소방헬기의 마지막 비행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 KBS가 사고 영상을 찍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물량 넘치는데 급히 처분”..ASF 매몰돼지 허술한 관리'**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처분된 돼지들로 주변이 심하게 오염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KBS에서 소홀한 사후관리 실태를 보도했는데, 사태가 심각한 듯 보여 몹시 우려스러웠다. 특히 살처분 돼지에서 핏물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하니, 인근 취수장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도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주기 바란다. <11월 14일 보고서>

##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58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청구·철회 등)	계
33	5	10	10	58

※ 2019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15일	나**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 납부 거부한 건수와 전체가구비율	공개	
2	1월 16일	김**	뮤직뱅크 순위 산정위한 조사내역 (2018.12.24-30)	비공개	시청자개개인 의문 답변 불가 및 정보공개 법률 9조5항적용
3	1월 18일	김**	제27,28,29기 시청자위원회 전체 예산 및 집행내역	공개	
4	1월 21일	사)사랑 나눔장함	공사의 기록물 폐기일정과 폐기수량 등 공개 요구	공개	
5	1월 29일	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밀소유 현황	비공개	청구인이 요구하는 비밀 관련 소유 부존재
6	1월 31일	서**	전주총국의 청구인 관련 보도와 관련돼 서류 공개 등	비공개	정보공개 관련 법률 9조4항 등에 따라 비공개 통보
7	2월 5일	이**	최근 5개년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 및 수신료 징수액 등	공개	
8	2월 6일	이**	친일파 재산 조사 및 국가 환수	불문처리	공사와 관련 없는 청구로 불문처리
9	2월 8일	김**	한국방송공사 정관,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2018년 1월 이후)	공개	
10	2월 9일	하**	방송유지와 청사방호를 위한 기밀 공개 이의신청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2월 12일	조**	청구인이 보낸 서신의 출력일 자와 출력인의 성함	불문처리	정보부존재로 불문처리
12	2월 18일	김*	2000년-20018년 본사 공채 인 원, 경쟁률, 합격자 경력 등	부분공개	본사 자료관리 보존기한 5년 에 따라 나머지 기간은 비공 개
13	2월 19일	서**	청구인 관련 서류 및 교도소 취재 공문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관련 법률 9조4항 등 에 따라 비공개
14	2월 20일	권**	1984년 제3회 전국 할아버지 할머니 수공예전 원본 열람	공개	
15	2월 20일	서**	청구인 관련 취재 공문 등 공 개 요청	불문처리	정보공개관련 법률 9조4항 및 불문처리 결정에 따라 불문처 리
16	2월 27일	김**	제27,28,29기 시청자위원회 구 성 및 출석 현황	공개	
17	3월 7일	서**	청구인 관련 서류 및 교도소 취재 공문 공개	불문처리	관련 규정, 문건에 따라 불문 처리
18	3월 12일	김**	라디오진행자 김경래, 정준희 등의 월별 출연료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돼 비공개
19	3월 19일	중앙행정 심판위	청구인 이용수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제출 건	기각 요청	KBS사장의 업무추진비는 홈페 이지 공개, 청구인 사건과 무 관 통보
20	3월 25일	김**	2018.1~2019.2 KBS전체 소속 차량 유류비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3월 29일	(사)언론 인권센터	KBS 2018년 이사회 예산집행 내용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4조 개인정보 비밀 일부는 비공개
22	4월 12일	중앙행정 심판위	2019년 제14회 중앙행정심판위 심리기일 통보	기타	
23	4월 17일	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 애인 채용, 비율 등	공개	
24	4월 20일	하**	한미 간에 체결된 통신정보협정 (1956.1)에 대한 보도 여부	불문처리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료 존재 여부 불분 명
25	5월 2일	임**	KBS 정관	공개	
26	5월 10일	이**	문재인정부 2년 특별대담 관련	공개	
27	5월 10일	김**	문재인정부 2년 특별대담 관련	공개	
28	5월 10일	하**	문재인정부 2년 특별대담 관련	공개	
29	5월 14일	하**	KBS 사규 문서 규정	공개	
30	5월 21일	중앙행정 심판위	행정심판 사건 조사 및 심리위 한 자료제출 요청	이송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5월 24일	이**	KBS제주총국 조직도, 업무 및 인원	공개	
32	6월 11일	충북 민언련	KBS청주총국 시청자위원, 운영 규정, 운영비 내역(17'-18')	공개	
33	6월 17일	하**	AI를 활용한 차세대 방송 기술	정보부존재	이메일 공지
34	6월 17일	김**	라디오기술국 단기 연봉 채용 관련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비공개대상정보) 1항의 6호 등에 의한 제공 불가
35	6월 18일	박**	2019.5.17<KBS 뉴스9> 경찰, 외국인 노동자 강압수사 관련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비공개대상정보) 1항의 4,6,7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18조에 의한 제공 불가
36	6월 30일	하**	KBS보안업무 처리규정	공개	
37	7월 10일	육과청 소년	KBS온 견학출 비상탈출로 등 안내도 안전 서류	공개	
38	7월 11일	유**	KBS가 재산세, 법인세 납부 및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39	7월 17일	김**	2016년-2019년 6월까지 수신료 환불 민원건수	공개	
40	7월 17일	글로벌 지식단지	라디오방송 <대한민국 경제실록>방송 목록	부분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8월 22일	정**	KBS 자회사 근로조건 등	비공개	자료 존재하지 않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경영상 비밀에 해당
42	8월 22일	손**	2017-18 이사회 안건공개여부, 속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	공개	
43	9월 10일	최**	KBS라디오의 온라인 스트리밍 음량이 높은 이유 등	공개	
44	9월 17일	조**	유튜브 깔깔TV의 누락된 영상 업로드 요청	공개	
45	9월 25일	윤**	KBS 해외지사 현황	공개	
46	9월 26일	강**	KBS의 방사능 피해 지원보상제도 규정	공개	
47	10월 9일	정**	KBS와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전문	공개	
48	10월 일	홍**	KBS가 보유중인 이산가족기록물 등	공개	
49	10월 30일	이**	수신료 징수 위탁자 및 수탁자 내용	공개	
50	10월 30일	김**	KBS 징계내규 및 라디오 임원 5년간 징계 결과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51	10월 30일	조**	해피투게더 시즌 1회 업로드 관 련	공개	
52	10월 31일	김**	평양 남북축구 영상파일, 계약 내용 등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영업상의 기밀 등에 해당
53	11월 6일	김**	KBS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공개	
54	11월 6일	김**	2016년 이후 오보 현황 및 징계 현황	부분공개	오보에 관한 관련 현황 자 료 부존재
55	11월 13일	김**	KBS 인사규정 자료 등	공개	
56	11월 25일	백**	평양 남북축구 영상파일, 계약 내용 등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영업상의 기밀 등에 해당
57	12월 25일	이**	호봉표를 포함한 KBS 보수규정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영업상의 기밀 등에 해당
58	12월 31일	윤**	KBS 스폰지 152회 일부 영상 제공 여부	기타	정보공개 요청 철회



# 시청자 권익보호

##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 6

#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55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55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0	0	7	7
2		1	0	4	5
3		4	0	6	10
4		1	0	1	2
5		5	0	2	7
6		3	0	0	3
7		6	0	0	6
8		3	0	1	4
9		3	0	0	3
10		1	0	2	3
11		0	0	3	3
12		2	0	0	2
계		29	0	26	55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35건)			비제작부문(20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4	13	18	4	2	14	55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4	7.2%
보도 취재요청	0	0.0%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3	5.4%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1	1.8%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7	12.7%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12	21.8%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22	40.0%
난시청, 난청	2	3.6%
경영(직원, 시설)	1	1.8%
수신료	3	5.4%
계	55	100.0%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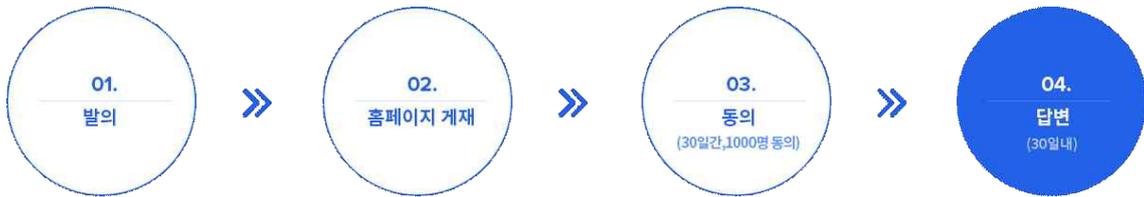
## 시청자청원

### ■ 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 ■ 시청자청원 절차

청원 발의를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 추천은 주요 SNS (Facebook, Twitter, Naver)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카카오의 경우 중복 아이디 차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안에 시청자 프로그램, 동영상,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 ■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단, 청원 동의는 SNS회원도 가능합니다.
7.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8.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9.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80	
2		71	
3		67	
4		97	
5		240	
6		53	
7		115	
8		68	
9		55	
10		174	
11		71	
12		184	
계		1,275	

※ 청원: 2018.09.04. 오픈

# 8

##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센터에서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sup>2)</sup>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sup>3)</sup>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센터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sup>4)</sup>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3)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4)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b>□ 1TV [KBS 뉴스 9] 보도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날 9시 뉴스에서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보도해서 당황스러웠다.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데, '피의자'보다는 '피고발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li> </ul>	<p><b>□ 담당부서 : 사회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으로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 취재 결과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확인 돼 피의자로 표기하였습니다.</li> </ul>
시 사 교 양	<p><b>□ 1TV [인간극장]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네 살 농부 지훈이의 이야기를 시청했다. 제주시에서 감귤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일손을 거드는 모습이 기특했다. 그러나 지훈이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몹시 우려스러웠다. 법적으로 18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지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건 도로가 아닌 제한된 구역에서 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이 나왔지만, 전체 관람가인 방송에서 너무 비교육적인 장면이었다.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지게차 재해인 만큼, 앞으로는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안전 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1TV 제작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별표 1 번에 보면 건설기계범위라고해서 지게차에 포함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지훈이가 운전한 지게차는 전동식이고, 공장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지게차 면허와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 전 지훈이의 연령과 운전상황 등을 전달한 후 제주시청 건설과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b>□ 1TV [도전, 골든벨] 방송 제언</b></p> <p>- 이날 방송에서 '한국의 대표 시인으로, 한국의 보들레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 일까요?'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답은 미당 서정주였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친일문학을 발표했고, 문학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던 인물이다. 더욱이 올해는 3.1 운동 100 주년을 맞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미화하는 문제를 출제한 점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국민감정을 신경 써서 문제를 출제해 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시사교양 1국</b></p> <p>- 전라북도 고창 출신 인물을 찾던 중 서정주 시인이 불가피하게 선정되었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방송에는 해당 부분을 편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학생이 대거 탈락하는 과정을 설명할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제 출제 시 역사적인 사실과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고려하겠습니다.</p>
	<p><b>□ 1TV [TV쇼 진품명품] 시청자 참여 제언</b></p> <p>- 오랫동안「TV쇼 진품명품」을 재미있게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고 싶어 감정의뢰를 했고, 한 달 후 전화를 걸었는데 제작진과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도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p>	<p><b>□ 담당부서 : 시사교양 1국</b></p> <p>- 감정의뢰를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원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방 출장, 답사, 녹화, 편집 등의 일정을 소화하다보면 사무실에는 상주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b>□ 1TV [도전, 골든벨] 방송 제언</b></p> <p>- 청소년들이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이날 '1869년 제1회 올림픽대회에서 체조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종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정답은 '역도'였는데, 제1회 올림픽은 '1869년'이 아니라 '1896년'이다. 지식 습득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므로, 문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p> <p><b>□ 2TV [제보자들] 방송 제언</b></p> <p>- 이날 방송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을 모두 속인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세입자와 임대인을 속인 공인중개사의 실체는,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러나 방송 내내 공인중개사로 소개가 되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시사교양1국</b></p> <p>- 다시보기 서비스 및 재방송에는 자막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p><b>□ 담당부서 : 시사교양2국</b></p> <p>-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수정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input type="checkbox"/>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출연자 섭외 제언</p> <p>- '해피 선데이'를 재미있게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그런데 '1박 2일'의 멤버인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6 년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멤버를 프로그램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제언</p> <p>- 이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답은 다름 아닌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여서 무척 놀라웠다. 그런데 배경 화면에 사용된 그림이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어서 당황스러웠다. 방송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KBS 홈페이지 전문</p> <p>- 정준영 씨 관련 1박 2일 제작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제작진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준영 씨의 1박 2일 출연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2회 분량의 방송분도 정준영 씨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 방송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협력제작 2부</p> <p>- 홈페이지에 정정문구 게재 및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즉시 수정하였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b>□ 1FM [1FM 다시듣기 서비스 중단 관련] 홈페이지 제언</b></p> <p>- 오랜 기간 KBS 라디오 1FM 을 사랑해온 애청자이다. 지난 1일부터 1FM 채널의 다시듣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관계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다시듣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수많은 청취자들을 위해 다시듣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p>	<p><b>□ 담당부서 : KBS 홈페이지 전문</b></p> <p>- 그동안 클래식 FM 다시듣기 서비스를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시듣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다시듣기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클래식 FM 제작진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음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t;FM 실황음악&gt;은 EBU 관련 조건에 따라 &lt;KBS 음악실&gt;의 라이브 코너는 경우에 따라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p>
기 타	<p><b>□ [KBS 교향악단 제 742 회 정기연주회 홍보영상] 방송 제언</b></p> <p>- KBS 를 시청하던 중, KBS 교향악단의 742 회 정기연주회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피아노 협연자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를 소개할 때 '청순한 외모', '매혹적인 자태'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여성으로의 매력을 연주자의 자질이나 경력보다 앞세워 어필한 것 같아서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 홍보영상 제작 시 이런 부분을 주의해주시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시청자 사업부</b></p> <p>-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홍보영상을 신중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 9

##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 1

### KBS 방송강령

#### [ 전문 ]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 [ 총 강 ]

###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 [ 방송 강령 ]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삭제 2008. 8. 1>

[ 별표2 ] <삭제 2008. 8. 1>

[ 별표3 ]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월	신월	월일	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 본부장, 기술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는다.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    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 5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 또는 'KBS'로 한다)가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해 구축한 '시청자청원'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운영한다.

항목	내용
방송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도	(TV·R)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TV·R)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광고 등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등
방송경영	행사, 사업, 계열사, 수신료 등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KONG, MY K 등
시청자권익	방송피해 및 권리구제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 4. 청원 발의 및 청원절차

- ①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접수된다.
  - ② 발의된 청원은 청원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 ③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⑥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⑦ 청원 성사 및 성사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원 발의자에게 알려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②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③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④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⑤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⑥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훈락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발의된 청원에 동의(추천)를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⑦ 관리자는 장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⑨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 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